

정답과 해설

갈래 짚하기	2
1 글로 느끼는 사람의 향기	3
2 네 마음에 감성의 무늬를 새겨 봐	9
3 설득이라는 창과 방패	16
4 읽기에 접속하시겠습니까?	23
5 문학으로 만나는 삶과 역사	28
6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42
• 최종 모의고사	51



갈래 짚하기

갈래 확인 문제

7쪽	1 ⑤ 2 '나' 3 (1) ○ (2) × 4 ①
8쪽	5 ② 6 (1) 연시조 (2) 엽시조 7 ④
9쪽	8 ⑤ 9 절정 10 ④
10쪽	11 ③ 12 일대기적 13 ② 14 줄글, 인간
11쪽	15 명료성 16 ④ 17 ⑤ 18 (1) ○ (2) ×
12쪽	19 (1) ○ (2) × 20 문학성 21 집중적 구성 22 ④
13쪽	23 ② 24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기 25 ③ 26 (1) × (2) ○
14쪽	27 (1) ○ (2) ○ (3) × 28 ④ 29 ④

- 1 화자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인이 만들어 낸 인물이나 사물로, 시 속에 직접 등장할 수도 있지만,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 『보기』의 화자는 '나'이다. 『보기』에는 유년 시절 시장에 가서 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움이 잘 드러나 있다.
- 3 (2) 마음속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어조는 고백적 어조이다. 비판적 어조는 옳고 그름이나 어떤 대상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어조이다.
- 4 제시된 시구에는 순서대로 직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직유법과 의인법은 모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인 비유의 종류이다.
- 5 시조는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다.
- 6 연시조는 3장 6구의 기본 형식을 갖춘 평시조 두 개 이상이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 시조이고, 엽시조는 초장, 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더 길어진 시조이다.
- 7 이 시조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작가 미상의 사실시조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부패한 관료들과 양반 계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 8 소설의 인물은 작가가 작품 속에서 성격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창조한 허구적인 존재이다.
- 9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단계는 절정이다.
- 10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할 뿐, 인물의 심리까지는 알 수 없다.
- 11 고전 소설에서는 사건이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고 전개되기 때문에 사건 전개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12 영웅 소설은 비범한 인물의 영웅적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로, 주인공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한다.
- 13 수필에서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글쓴이(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 14 수필은 사실적이고 소설은 허구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갈래 모두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산문 문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 15 설명문은 글쓴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따라서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명료성이라고 한다.
- 16 본문에서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앞으로의 과제나 당부의 말은 맺음말에서 제시한다.
- 17 ⑤는 뮤지컬과 연극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한 비교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다. ①은 인과, ②는 대조, ③은 정의, ④는 분석이 사용되었다.
- 18 (2) 논설문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한다.
- 19 (2) 전기문에는 실존했던 인물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와 평가가 함께 담긴다.
- 20 전기문은 교훈성, 진실성, 문학성이 드러나는 글로, 글쓴이의 개성적인 문체와 주관적인 시점이 드러나는 것은 문학성에 해당한다.
- 21 전기문의 구성 방식에는 일대기적 구성과 집중적 구성이 있는데, 인물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업적이 드러난 시절만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을 집중적 구성이라고 한다.
- 22 전기문과 자서전은 모두 실존했던 인물의 일생이나 그 일부를 기록한 글이므로 사실적이다.
- 23 자서전은 자신이 실제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로,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다.
- 24 자서전을 쓸 때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용을 구상한 후, 중요한 사건 위주로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5 속담이나 격언 등의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상황이나 생각을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쉽다.
- 26 (1) 시간의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은 연대기적 구성이다.
- 27 (3) 고전적 토론에서는 입론을 먼저 제시하고 난 후 반론을 제시한다.
- 28 사회자는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뿐, 논제에 대한 주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29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 양측의 토론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는 것은 토론이다.



1 글로 느끼는 사람의 향기



개념 잡기 문제

16쪽

1 ④ 2 ④ 3 화제 4 ③

- 경험이 담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꿈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자서전은 실존했던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로 상상하여 쓴 글이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과 구별되지만, 서술, 묘사, 대화와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 자서전은 삶의 특별한 경험을 시간 혹은 화제의 순서에 따라 전개한다.
- 자서전을 쓸 때 속담이나 관용 표현, 격언, 사진, 그림 등의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음악은 자서전과 같이 글로 기록하는 문자 매체가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이다.

01. 나비 박사 석주명

제재 확인 문제

17쪽

1 ⑤ 2 (1) ② (2) ① (3) ㉠ (4) ㉡ 3 ㉠, ㉡, ㉢

-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한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비를 연구하는 일 또한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석주명 선생은 한 줄의 논문을 쓰기 위해 수만 마리의 나비를 연구할 정도로 집념이 강하고 성실하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중한 성격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할 줄 아는 주체성과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애국심을 지녔다.
- 이 글은 실존했던 나비 학자 석주명의 생애와 업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성과 교훈성을 지니고, 글쓴이의 주관적 시점과 개성적 문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학성을 지닌다.

본문 확인 문제



18쪽	1 ① 2 ④ 3 성실하고 꼼꼼하다.(성실하고 끈기가 있다.)
19쪽	4 ⑤ 5 ⑤ 6 애국심이 강하다.
20쪽	7 ② 8 ③ 9 ㉠-㉡-㉢ 10 ②
21쪽	11 ④ 12 ③ 13 개체의 변이를 밝혀내고,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22쪽	14 ⑤ 15 ④ 16 나비 박사 17 ②
23쪽	18 ④ 19 ① 20 ③

- ㉠, ㉡에서는 오카지마 선생이 낸 과제를 홀로 수행한 석주명의 일화를 통해 집념이 강하고 성실한 석주명의 됬됨이를 드러내고 있다.
-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 오는 날 곤충을 채집하라는 오카지마 선생의 과제에 불만을 가졌는데(㉠), 하루살이를 채집하여 가져온 학생은 조선인 유학생 석주명뿐이었다(㉡).
- 오답 피하기** ㉠. 당시 석주명은 유일한 조선인 유학생이었다. ㉡. 오카지마 선생은 학생들을 운동시키기 위해 비 오는 날 곤충 채집 과제를 내 준 것이 아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카지마 선생이 낸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성실하고 끈기 있는 석주명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석주명은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해 준 원흥구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가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된다.
- 오답 피하기** ① 원흥구 선생님은 일본에 가지 않았다. ② 석주명은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에 가서 오카지마 선생을 알게 되었다. ③ 석주명은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가 일본에서 이름난 농업 전문학교라는 것을 알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원흥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다. ④ 석주명은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 석주명은 곤충 중에서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조선의 나비는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비를 연구하게 되었다.
- 오답 피하기** ㉠, ㉡ 나비 연구가 조류학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나 학생들이 나비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자신이 배운 지식을 조국을 위해 쓰겠다는 꿈을 안고 조선으로 돌아온 모습에서 석주명이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실천하는 애국심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석주명은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독립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여 나비 연구를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학문을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과 ㉡에서 석주명이 생각하는 나비 연구의 의의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다.

③ 나비 연구 업적이 성과를 보이면서 석주명이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④ 석주명은 다른 사람이 나비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 것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석주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비 연구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석주명이 다양한 곤충 도감의 오류를 수정하고 곤충 도감의 기초가 될 자료를 많이 만들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곤충 도감을 출판할 목적으로 나비를 연구한 것은 아니다.

8 ㉠에서 석주명은 나비 연구를 왜 하나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나비를 연구하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었으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9 ㉡에서 석주명은 채집한 나비(㉢)를 표본으로 만든(㉣) 다음, 곤충 도감을 펴 놓고 하나씩 확인하며(㉤) 나비를 연구했다고 하였다.

10 ㉢에서 석주명은 자신이 만든 표본과 곤충 도감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같은 종임에도 책에서는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다른 나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였다.

11 일본의 학자들은 표본을 적게 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비의 개체 변이를 무시하고 분류한 실수를 저질렀고(㉥),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에 채집한 나비가 조금만 달라도 새로운 종으로 분류하였다(㉦).

12 ㉢에서 석주명은 나비를 연구하면서 잘못 정해진 학명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 '중학교 교사이자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한 풋내기 학자였던 ~'을 통해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석주명은 많은 나비 표본을 통해 개체 변이를 밝혀내었다.

④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욕심은 일본 학자들에게 있었다.

⑤ 석주명은 여러 책을 참고한 후 도감의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많은 표본을 연구한 후 도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 석주명은 많은 나비를 채집해서 개체의 변이를 밝혀내고,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석주명의 연구에 학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14 ㉢에서 석주명은 대학을 졸업하지도,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으나, 뛰어난 나비 연구 결과를 볼 때 '나비 박사'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를 보면 석주명은 조선산 나비 255종을 정리하고, 세계 곤충학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를 보면 석주명은 800개가 넘는 잘못된 학명을 바로잡았다고 하였다.

④ ㉢를 보면 석주명의 연구를 통해 조선 나비 분류학은 점차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갔다고 하였다.

15 기존의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권위 있는 학자의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로잡은 모습에서 석주명의 주체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단 한 줄의 논문을 쓰기 위해 수만 마리의 나비를 연구하는 모습에서 성실하고 집념이 강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 오답 피하기 | ㉨. 석주명의 외향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석주명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지만 일본의 이름난 대학교수들도 인정하는 나비 연구 성과를 올려 '나비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17 ㉧~㉩에서는 조선산 나비를 총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세계 곤충학계에 이름을 알린 석주명의 연구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소재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다.

18 석주명의 연구 방법은 오늘날에 보면 필요 이상으로 힘을 많이 쏟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직 분류학의 체계가 서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러한 연구 방법이 꼭 필요했다고 하였다.

19 석주명은 그 당시 불모지에 가까웠던 조선의 나비 연구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국경을 넘어 높은 평가를 받았을 만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20 이 글은 실존 인물인 석주명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문이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전기문의 특징 중 진실성에 해당한다. 이 글은 실존했던 조선의 나비 학자 석주명의 생애 및 업적을 다루고 있다.

④ 전기문의 특징 중 교훈성에 해당한다. 석주명의 업적과 함께 본받을 만한 모습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전달한다.

⑤ 전기문의 특징 중 문학성에 해당한다. 이 글에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인물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시점과 해석이 나타나고 글쓴이 특유의 문체가 나타난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24쪽

1 ④ 2 ③ 3 ②

1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상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파브르의 일화는 제시되어 있지만, 제시된 지문에 이와 관련한 석주명의 일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2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인생관의 기초를 칠전팔기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석주명의 가르침을 통해 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석주명을 통해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보기』의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고, 계획한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도중에 쉽게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글쓴이는 ②와 같이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다.

족집게 예상 25~26쪽

1 ② 2 ② 3 ① 4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녔기 때문이다.(나비는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과도 친숙한 곤충이기 때문이다.) 5 ② 6 ⑤ 7 ① 8 일본 학자들이 나비의 개체 변이를 무시한 채 분류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기려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9 ⑤

1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글은 전기문이 아니라 자서전이다.

2 ㉠을 통해 석주명에게 생물을 가르쳐 준 선생이 원흥구임을 알 수 있다. 오카지마 선생은 곤충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석주명이 1931년 모교인 송도 고등 보통 학교로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석주명이 송도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조선에 돌아온 후 석주명은 영생 고등 보통학교의 생물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④ ㉡~㉣에는 대만에서 곤충 채집을 했던 석주명의 일화가 제시되어 있다.

⑤ ㉤를 살펴보면 석주명은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를 다닐 때 오카지마 선생 덕분에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3 ㉡~㉣에는 곤충 채집과 관련한 석주명의 일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에서 오카지마 선생이 석주명을 칭찬한 내용이나 ㉣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석주명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4 ㉤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비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사람들과도 친숙하기 때문에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①의 뒤에 이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석주명이 돈이 되지 않는 나비 연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 글은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쓴 전기문이다. 전기문을 읽을 때는 한 인물이 업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는 모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시를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② 설명문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③ 논설문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④ 시, 소설, 희곡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7 석주명은 우리나라에서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나비 연구에 도전하여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나가려는 ①과 같은 대상에게 석주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 일본 학자들이 펴낸 도감에서 틀린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던 이유는 도감을 펴낸 학자들이 나비의 개체 변이를 무시한 채 학명을 붙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채집한 나비가 조금만 달라도 새로운 종으로 분류하였다.

9 ㉠을 참고할 때 석주명이 ‘나비 박사’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일본의 이름난 대학교수들까지 인정할 정도의 연구 성과(㉡)와 그러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많은 노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27쪽

1 ③ 2 ② 3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나비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1 전기문은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글이므로 문학적 효과를 위해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대화 내용은 석주명과 관련된 일화를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지, 허구적인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2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나비 박사 석주명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전기문이다. 전기문은 일반적으로 대상인 인물과 그의 업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 글의 글쓴이도 석주명의 업적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②는 운선도의 시조로, 순간적인 꽃, 풀과 달리 영원한 속성을 지닌 바위를 예찬하고 있어 이 글의 글쓴이와 대상을 대하는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박인로의 시조로, 두 아우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③ 박팽년의 시조로, 임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송순의 시조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⑤ 이황의 시조로, 학문 수양에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3 ㉠의 '비록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가 되었지만,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이다.'를 통해 『보기』처럼 석주명은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02. 하나만 알고, 하나만 바라보며

제재 확인 문제

28쪽

- 1 시간 순서, 자서전 2 (1) ○ (2) ○ (3) × 3 카리스마
4 ⑤

- 1 이 글은 글쓴이가 배우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자서전이다.
2 (3) '나'가 극단 '자유'의 창단 멤버가 된 시기는 1966년이다.
3 현재 연극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수식되고 있다.
4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특징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 줘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독자가 보조 자료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 확인 문제



- 29쪽 1 ③ 2 ③ 3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4 ⑤
30쪽 5 ⑤ 6 ① 7 ③
31쪽 8 ⑤ 9 어떤 역이든 간에 최고의 애정을 바쳐 왔고 또 표현해 왔기 때문이다. 10 ③
32쪽 11 ③ 12 ② 13 ④ 14 배역을 잘 소화한다.

- 1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한 사람은 어머니이다. '나'가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를 통해 '나'의 출생과 '나'가 유년 시절에 6·25 전쟁의 혼란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는 등록금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나'의 가정 형편이 드러난다.
⑤ ㉢를 통해 '나'가 처음 연극을 보게 된 때가 아홉 살 무렵 오빠를 따라갔을 때임을 알 수 있다.
2 ㉣에서는 전쟁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려웠던 '나'의 가정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께서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나'의 가족은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다.

- 4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 식료품을 날라다 팔았을 뿐 식료품점을 직접 운영하신 것은 아니다.
5 글쓴이는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일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자서전이므로 독자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④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드러나 있지만, 이들을 비교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6 ㉡를 통해 '나'가 입학식 때가 아니라 졸업식 때 답사 낭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7 반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 '나'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8 어린 시절 성극에 출연한 것(㉠), 합창부와 무용부에서 활동했던 것(㉡), 성우가 된 것(㉢) 등이 모두 훗날 '나'가 연극배우로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되었다고 하였다.
9 ㉣에서 '나'는 연극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지적과 충고를 받기도 했지만, 어떤 역이든 최고의 애정을 바쳐 왔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자신의 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10 ㉠은 격언이고 ㉡은 속담이다. 자서전을 쓸 때 격언이나 속담을 활용하면 글쓴이의 상황이나 생각을 간결하고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쉽다.
11 ㉡를 보면 '나'는 뛰어난 미모를 지니지 않았지만,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수식된다고 하였다.
12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준비한 덕분에 징그러운 정도로 배역을 소화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글쓴이의 삶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 타인을 배려하는 것과 관련된 일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나'는 연극배우로 50년을 살았고 남은 생도 연극배우로 보내고 싶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나'가 연극에만 집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극과 관련된 경험만 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13 자서전을 쓸 때는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자서전에서 가족의 이력을 자세히 제시할 필요는 없다.
14 ㉠은 징그러운 정도로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나'가 생각하는 최고의 찬사이다.



족집게 예상

33~34쪽

1 ⑤ 2 ④ 3 ⑤ 4 ④ 5 ⑤ 6 ④ 7 ③ 8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이 없듯이, 땅 없는 달콤함이 없듯이

- 1 이 글은 자신이 실제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자서전으로, 제시된 일화들은 글쓴이가 허구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직접 겪은 일들이다.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글쓴이의 상상에 의해 꾸며낸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서전은 글쓴이의 실재했던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자와의 교감이 쉽다.

② 자서전을 쓰는 목적 중 하나는 정서의 나눔이다. 이런 점에서 자서전은 문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자서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글이므로 사실적인 성격을 지닌다.

④ 자서전은 글쓴이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과 인물들이 중심으로 되어 전개되므로 즐거움을 갖는다.

- 2 '나'는 중·고등학교 때 합창부와 무용부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시절에는 연극을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였다.

- 3 ㉠에는 선생님께서 '나'가 독특한 음성과 정확한 발성을 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아본 덕분에 '나'를 답사 낭독자로 뽑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 4 ㉡~㉣에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일화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운동회 때와 졸업식 답사 낭독 때 사진(㉡, ㉢), 중·고등학교 때 무용부에서 검무를 추던 사진(㉣)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나. ㉡~㉣은 '나'가 아직 연극배우가 되기 전의 상황이므로, 연극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연극하는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 자서전을 쓸 때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관련이 없는 보조 자료나 필요 이상의 보조 자료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독자가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④ 자서전의 내용을 선정할 때 예상 독자의 관심과 흥미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글에 담고 싶은 인상적인 경험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독자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③ 선정한 내용을 쓸 때 자신의 삶을 미화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 6 이 글에는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연극배우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는 글쓴이의 삶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는 ④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7 ㉡에서 '나'는 비중이 적은 배역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주인공만 바랐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 8 『보기』는 격언이나 속담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이 없듯이'와 '땅 없는 달콤함이 없듯이'는 속담으로, 격언인 ㉠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35쪽

1 ① 2 ④ 3 연극배우로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줘, 연극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글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글쓴이의 개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 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 기록한 자서전으로, 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되며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주관적으로 서술된다. 한편 『보기』는 이순신의 업적과 성품에 대해 기록한 전기문으로, 전기문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술되며 인물이 살았던 시대성이 반영된다. 진술한 내면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성찰의 내용을 담는 것은 자서전의 특징이다.

- 2 ㉡의 뒤에서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이 없듯이 나는 나이에 제한 없이 배역을 넘나들었고 조역이나 단역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은 '나'가 조역이나 단역을 맡더라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마음가짐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3 자서전에서 보조 자료를 사용하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글쓴이의 개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대단원 평가

36~38쪽

1 ⑤ 2 ④ 3 ⑤ 4 ③ 5 ③ 6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붙는 연극배우가 되었다. 7 ④ 8 ⑤ 9 ⑤ 10 ④ 11 ④

- 1 석주명이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겼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를 보면 일본 학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학명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에 채집한 나비가 조금만 다르면 새로운 종으로 분류한 탓에 도감의 나비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 2 75만 마리에 이르는 나비를 채집하여 개체 변이를 밝힌 연구를 통해 석주명은 우리나라의 나비 분류학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따라서 석주명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비에 대해 편집증적인 집착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⑤ 여러 분야에서 학문을 쌓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석주명의 모습에서 애국심과 진중함을 엿볼 수 있다.

② 기존의 연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에서 석주명을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한 분야에서 20여 년을 꾸준히 연구한 모습에서 석주명을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전기문은 현재 독자가 처한 시대적 현실이나 삶과 연관 지어 감상할 때 가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4 ㉠은 성극에 출연했던 경험이나 노래와 무용을 접했던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연극배우가 되기 위한 운명적 행로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중심 내용은 연극배우로서의 삶에 도움이 되었던 다양한 경험들이다.
- 5 사용하려는 보조 자료가 글쓴이의 개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료의 크기를 다양하게 구성한다고 해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6 ㉡를 통해 뛰어난 미모를 지니지도 않았고 더 이상 젊지도 않은 현재의 ‘나’가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붙는 배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7 ㉠ 뒤에 ‘나’가 조역이나 단역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애정을 바쳐 왔다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땅을 만나도 싹틔움이 없이 정성껏 가꾸어 소출이 많다는 뜻의 ㉣이다.
- | 오답 피하기 |** ① 눈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서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사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여 다르다는 말이다.
 ⑤ 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거나 희생시킨다는 말이다.
- 8 ㉡~㉣는 전기문이고, ㉠, ㉡는 자서전이다. 전기문과 자서전은 모두 실제 인물이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는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 | 오답 피하기 |** ①, ③ ㉡~㉣에서는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한 석

주명의 삶과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 ㉢에서는 연극배우인 박정자의 삶과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와 ㉠, ㉡에는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이 드러난다.

②, ④ 독자는 석주명과 연극배우 박정자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9 석주명과 ‘나’는 모두 자신이 매력을 느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를 읽고 ㉤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10 ㉡를 보면 석주명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의 나비 분류학이 한 단계 끌어올려졌다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석주명이 일본의 곤충학자들과 활발히 교류를 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를 보면 석주명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도움을 받을 만한 스승이나 동료 없이 스스로 책을 찾아 가며 나비 연구를 해야 했다고 하였다.

③ ‘석키아’는 일본의 나비학자 시바타니가 석주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낸 학명일 뿐, 석주명의 업적은 아니다.

⑤ 석주명은 나비 분류학을 공부하며 나비 연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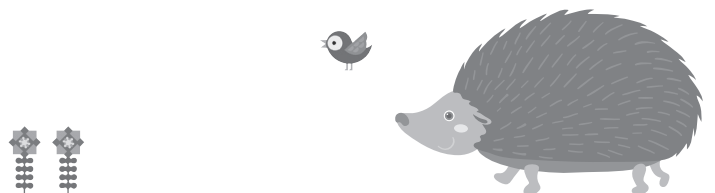
- 11 ㉡와 ㉢의 ‘나’는 연극배우로서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연극배우가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서전을 쓴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땀 없는 달콤함이 없듯이’라는 속담을 통해 ‘나’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에 ‘나’가 지금까지 190여 편의 연극에 출연했다고 나와 있다.

③ ㉢에 제시된 합창부와 무용부에서 활동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경험들은 연극배우로서의 삶에 밑바탕이 되었던 경험들이다.

⑤ ㉢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있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나’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2 네 마음에 감성의 무늬를 새겨 보



개념 잡기 문제

40쪽

1 화자(시적 화자), 서술자 2 ⑤ 3 역설, 반어

- 1 작가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를 시에서는 '화자(시적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한다.
- 2 화자는 '임'을 '금결'과 '아침 별의 첫걸음'에 비유하며, 영원토록 천국의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다. 즉 '임'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 3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역설'이 쓰였다고 할 수 있고, "참 잘 했다."라고 말한 것은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이므로 '반어'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

01. 먼 후일

제재 확인 문제

41쪽

1 ④ 2 ③ 3 반어 4 ③

- 1 화자는 이별한 임이 훗날 자신을 찾아오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2 화자는 겉으로는 '당신'을 잊었다고 하나, 속마음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당신'에 대한 변하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3 '먼 후일'은 반어법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4 이 시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그리움이 주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본문 확인 문제



43쪽

1 ⑤ 2 ② 3 ⑤ 4 ④ 5 ② 6 ③ 7 (1) 당신을 잊었다. (2) 당신을 잊을 수 없다.(당신을 잊지 못했다.)

- 1 이 시는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진술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잊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이 시의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과 같이 미래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3 『보기』의 '잊었노라.'라는 표현은 화자의 속마음과는 반대되는 반어적 표현이다. 즉,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반복함으로써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애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반어적 표현은 시적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② 화자에게 이별은 서글픈 정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③ 모순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은 반어가 아닌 역설에 해당한다.

④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의 반복은 '당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할 뿐, '당신'이 지닌 의미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4 이 시는 각 행을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3음보는 민요적 율격으로 전통적 율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시는 이와 같은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의성어나 후렴구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4·4조의 글자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것도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시에서는 네 글자의 일정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 5 화자는 자신의 곁을 떠난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즉, 이 시에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화자가 느끼는 슬픔, 그리움, 안타까움의 정서가 깔려 있다.
- 6 제목 '먼 후일'은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후 '당신'을 그리워하는 현재와 대비되는 미래의 시간으로, 떠난 '당신'이 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대하는 시간이다.
- 7 '잊었노라.'는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심정이 반어적으로 표현된 말로 '당신을 잊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44쪽

1 ⑤ 2 ② 3 ② 4 ⑤ 5 ③

- 1 이 시는 5행의 '사람들은 아직 순수하다.'와 8, 9행의 '이 세상 사람들은 / 아직도 순수하다.'에서 물질적 가치에 얽매어 살아가는 순수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2 이 시의 화자는 "사람들은 아직 순수하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땅을 제 것인 것처럼 사고파는 현대인들의 물질만능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만 드러나 있을 뿐,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세상 사람들이 순수하다는 표현은 순수하지 않다는 진심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가 사람들의 순수함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고뇌하는 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별들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이 시의 시적 대상인 ‘사람들’이 땅을 제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고파는 모습에서 물질적 가치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 ‘사람들은 아직 순수하다.’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반어적 표현이다. 『보기』의 학생은 발목을 다쳐 축구 결승전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하지 못한 서글픔과 아쉬움을 드러내며 ㉡와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학생의 서글픈 속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5 ㉢는 화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3행의 내용을 2행과 관련지어 이해할 때, ㉣는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죽집게 예상

45쪽

1 ② 2 ⑤ 3 ⑤ 4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이 이 시의 민요적인 성격을 부각한다. 5 ④

1 이 시는 ‘당신이 ~면 / 잊었노라.’라는 비슷한 구절을 변형하여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과거형 대답을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ㄱ, ㄷ). 또한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ㄴ).

| 오답 피하기 | ㄴ. 이 시는 ‘-아라/-어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ㄷ. 이 시에 대립적 시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화자는 ‘당신’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을 쌀쌀하게 업신여기어 비웃는 냉소적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당신’과 이별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나 있으므로, 애상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②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은 ‘당신’이다.

③ 화자는 ‘당신’이 먼 후일에 자신을 찾아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반어를 통해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으므로, 주된 정서는 그리움과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시에서는 ‘잊었노라.’를 통해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애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사람들은 아직 순수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 이 시는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3음보의 율격을 통해 전통적 정서인 한(恨)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믿기지 않아서’는 ‘당신’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46쪽

1 ④ 2 ① 3 ③ 4 (1) 반어(법) (2) 오늘도 어제와 아니 잊고 / 먼 훗날 그때까지도 당신을 잊지 못하겠노라.

1 이 시는 ‘잊었노라.’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시어나 표현에 집중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일제 강점기라는 작품의 창작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시인 김소월과 연관 지어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작품을 읽고 독자 자신의 삶과 연관 짓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⑤ 표현법에 집중한 감상으로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자가 임을 만날 것을 가정하여 표현한 것을, 임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먼 후일’이라는 작품의 제목으로 보아 임을 만날 미래가 아주 먼 일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이 시의 화자는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에도 속마음과는 다르게 ‘잊었노라.’라고 표현하였다. 즉, ㉠에는 화자의 정서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에서는 ‘님’은 갖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한 ‘역설’을 사용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화자의 슬픈 심정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③ ‘사소한 일’은 그대를 생각하는 일이 사소하지 않은 큰 의미의 일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별은 사고팔 수 없는 대상으로, 이를 거래하지 않는다고 ‘아직도’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표현한 것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⑤ ‘훌륭한 비석’은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물질적 성공을 거둔 사람을 풍자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 3 이 시는 화자와 임이 이별한 상황으로, 화자가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그냥 갈까’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떠난 주체가 임이 아닌 화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두 시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으로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였고, 『보기』는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로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였다.

② 두 작품 모두 시적 대상과 이별한 상황을 노래한 것으로, 애상적인 분위기가 시 전반에 깔려 있다.

④ 『보기』는 1, 2연에서는 화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고 아쉬움에 망설이는 내면적 갈등이, 3, 4연에서는 ‘까마귀’와 ‘강물’의 재촉으로 서둘러야 하는 외면적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⑤ 이 시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의 태도를 반영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작품 탐구

가는 길 _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요적, 전통적, 여성적
제재	가는 길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지난날에 대한 회상에서 오는 그리움		
특징	간결한 구조와 탁월한 언어 구사, 유음, 비음 등의 활용으로 음악적 효과를 거둠		

- 4 [A]에는 걸으로는 당신을 잊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화자의 속마음이 반영적으로 드러나 있다. 화자의 속마음을 [A]에 제시된 시적 형식을 사용하여 나타낼 경우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 먼 훗날 그때까지도 당신을 잊지 못하겠노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

02. 봄 길

제재 확인 문제

47쪽

1 ② 2 대조 3 ② 4 역설(법)

- 1 ‘봄 길’은 ‘봄’이 상징하는 희망과 ‘길’이 지닌 가능성, 미래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제목으로, 화자가 생각하는 희망을 의미한다.
- 2 이 시는 절망적 상황과 그 속에 존재하는 희망이라는 대조적인 시적 상황을 통해 희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3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말에서 긍정적 태도(ㄷ)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ㄹ)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단호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지적 태도(ㄱ)를 엿볼 수 있다.

- 4 제시된 시행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본문 확인 문제



49쪽

1 ② 2 ④ 3 ① 4 ② 5 보라. 6 ⑤ 7 ⑤

- 1 이 시는 ‘~이 ~에서도 / ~이 있다. / ~는 사람이 있다.’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ㄱ),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ㄷ).

| 오답 피하기 | ㄴ. 이 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적인 상황을 대조하여 희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색채 이미지를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ㄹ. 이상향에 대한 지향과 좌절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적인 상황을 대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제시된 시구들 중 ‘ㄴ, ㄹ, ㄴ’은 절망적인 상황을, ‘ㄱ, ㄷ, ㄴ’은 희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 3 이 시에서는 ‘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때 쓰인 ‘-다.’라는 종결 어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4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희망을, ‘길’은 절망 속에서도 존재하는 희망을,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는 희망을 상징한다.

- 5 7~9행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10행 이후에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희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시상을 전환하는 시행은 ‘보라.’이다.

- 6 『보기』는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A]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는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 7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랑이 끝난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50쪽

1 ③ 2 ② 3 ⑤ 4 ③ 5 (1) 거울을 보고 있는 화자(시적 화자)이다. (2) 시적 대상인 아버지이다.

- 1 이 시는 닮은 듯 닮지 않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적 대상인 아버지에게 대한 화자의 생각을 노래하고 있어 사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ㄷ). 또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ㄴ).

| 오답 피하기 | ㄱ. 계절적 이미지는 활용하지 않았다.

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의인화라고 하는데, 제시된 시에서는 의인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ㄹ. 시어가 반복되어 있지만,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다.



- 2 화자는 거울을 보며 떠올린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3 [A]는 화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이 아버지와 닮았으면서도 동시에 닮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ㄷ). 또한, [A]에는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시적 진실을 표현하는 ‘역설’이 드러난다(ㄹ).
- 4 [B]에서는 ‘그’가 ‘나’와 많이 닮았지만 많이 닮지 않았다고 표현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발생하는 ‘역설법’을 사용하였다. ③에는 ‘~듯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인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5 ㉠은 거울을 보고 있는 화자를 가리키고, ㉡은 6연을 참고할 때 시적 대상인 ‘아버지’를 가리킨다.

죽집게 예상 51쪽

1 ① 2 ③ 3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4 ①

- 1 이 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보기』 역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신과 닮았으면서 동시에 닮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② 제시된 시는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성격이 드러나지만, 『보기』는 사색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③ 제시된 시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상을 전환시키지만, 『보기』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통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④ 『보기』는 제시된 시와 달리 대조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제시된 시는 계절적 배경인 봄을 통해 희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 2 화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을 대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은 반어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시에 반어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다영’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 3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적인 상황을 대조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 8, 9행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4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순적 표현이 쓰인 것은 ㉠, ㉡, ㉢이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52쪽

1 ⑤ 2 ② 3 ④ 4 ‘보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앞서 제시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 1 『보기』는 이 시를 작품의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에서 비평한 글이다. 그러나 『보기』에 이 시가 문학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 오답 피하기 |** ① 1970년대 이후 따뜻한 인간애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고 정호승 시인의 작품 경향을 밝히고 있다.
- ② 창작 당시인 1970년대가 사회·문화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봄 길’이 희망의 이미지를 자아낸다는 시어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과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들이라고 시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 2 ㉠은 역설적 표현으로,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합당한 의미를 지니는 시적 진술을 말한다. ②는 표면적 모순은 나타나지 않지만, ‘굶주리는 마을’을 ‘화안히 곯기만 한 저녁놀’이 뜬 곳으로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3 ㉡의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끝나는 곳’, 즉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④의 김점순 할머니 역시 자신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않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②, ⑤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10행에서는 시상의 전환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03. 카멜레온

제재 확인 문제 53쪽

1 ③ 2 풍자 3 (1) ○ (2) × (3) ○ 4 ④

- 1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흐류킨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뿐, 개의 소유 문제로 흐류킨과 갈등하고 있지 않다.
- 2 작가는 풍자를 통해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태도를 바꾸는 오추멜로프 경감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웃음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3 (2) 오추멜로프 경감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인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달리하며,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이다.
- 4 작가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으므로, 용의주도함과는 거리가 멀다.

본문 확인 문제



54쪽	1 ② 2 ⑤ 3 하얀 보르조이 종(種) 강아지
55쪽	4 ⑤ 5 개와 개 주인 6 ① 7 ②
56쪽	8 ⑤ 9 ① 10 ⑤
57쪽	11 ③ 12 ③ 13 ④

- 1 ㉠과 ㉡는 발단 부분으로, 베추겐네 장작 창고 주변에서 개가 흐류킨의 손가락을 문 사건의 발단이 드러나 있다(ㄱ, ㄴ).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ㄷ).
- | 오답 피하기 |** ㄴ.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절정 부분에서 제시된다. ㄷ. ㉠과 ㉡에는 개에 물린 흐류킨의 부정적인 시각만 드러나 있다.
- 2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에는 자기를 문 개를 잡은 ‘그’의 만족스러움이 드러나 있다.
- 3 ㉠과 ㉡에는 사내가 개에게 물린 사건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주범은 흐류킨을 문 개이다.
- 4 이 소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며, 겉모습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는 알 수 없다.
- 5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에게 물렸다는 흐류킨의 말을 듣고 개와 개 주인을 비난하며, 개 주인을 찾아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
- 6 흐류킨은 ㉠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세밀한 작업임을 강조하며, 손을 다쳐 일할 수 없으므로 손해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 7 ㉠, ㉡, ㉢, ㉣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흐류킨의 손을 문 개’를 의미하고, ㉤는 흐류킨이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예로 든 ‘세상의 모든 개’를 의미한다.
- 8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개가 흐류킨의 손가락을 물고 난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ㄴ), 외투를 벗겨 달라고 하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말을 통해 당황한 그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ㄷ).
- 9 개의 주인이 장군이라는 말을 듣고, 오추멜로프 경감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흐류킨을 불신하고 있다.
- 10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결을 달리하려고 장군이 큰 사냥개 종만 갖고 있다는 순경의 말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있다(ㄴ, ㄷ).

- 11 ㉠에서 순경은 흐류킨을 문 개가 장군의 개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 12 오추멜로프 경감은 강자인 장군에게 아부하고, 약자인 흐류킨을 위협하는 이중적인 인물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경청이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인데, 주위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모습은 경청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주위의 말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으므로 사려 깊은 인물로 보기 어렵다.

② 오추멜로프 경감은 약자의 편에 서는 인물이 아닌 강자에게 아부하는 인물이다.

④ 오추멜로프 경감이 진심으로 개를 걱정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에서 개의 주인이 장군의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개를 칭찬하고 있을 뿐이다.

⑤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소신 있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 13 군중들 역시 오추멜로프 경감처럼 권력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개의 주인이 장군의 동생이라고 밝혀지자 흐류킨을 비웃는 것이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58쪽

- 1 ② 2 ④ 3 ⑤ 4 ‘꿈’은 미니 시리즈(대중 매체)의 작위성과 허황된 내용을 의미한다.

- 1 ㉠는 자유시로, 각 행을 동일하게 2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는 외형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운문체를 사용한 반면, ㉡는 판소리체 소설이기는 하나 수록된 부분은 산문체로 서술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는 시간의 변화가, ㉡에는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에는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서민 특유의 건강한 웃음은 ㉣에서만 드러난다.

⑤ ㉠는 대중 매체의 작위성에 대해 ㉡는 비극적인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는 ‘느닷없이’를 반복하여 미니 시리즈의 작위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으며(ㄴ), 1연을 16행으로 구성해 16부작 미니 시리즈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ㄷ).

- 3 ㉡에 흥부를 가난하게 만든 현실이 무엇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부정적인 현실을 공격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해학이 아닌 풍자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서술자는 흥부의 가난한 형편을 따뜻한 시선에서 그려내 독자는 해학의 대상인 흥부를 동정하게 된다.

③, ④ 기지개를 켜면 몸이 집밖으로 나간다는 과정을 사용해 흥부의 상황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4 ‘꿈’은 미니 시리즈(대중 매체)의 작위성과 허황된 내용을 상징하여 작품의 풍자 의도를 높이고 있다.



죽집게 예상

59쪽

1 ② 2 개의 주인이 장군의 동생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개의 주인이 장군의 동생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3 ④ 4 ②

- 1 ㉠에서 흐류킨을 비웃는 군중의 모습을 고려할 때, 군중은 흐류킨의 편이 아니라 오추멜로프 경감처럼 권력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개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오추멜로프 경감의 태도는 바뀌는데, ㉡에서 오추멜로프 경감이 개를 칭찬한 이유는 개의 주인이 장군의 동생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 3 ㉢에서 오추멜로프 경감이 감동의 미소를 짓는 이유는 프로호르에게서 장군의 동생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추멜로프 경감의 태도로 볼 때, 그가 장군의 동생과 화해를 모색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을 통해 개가 사나이(흐류킨)를 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가 흐류킨을 문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발단이 된다.
 ②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는 모양’을 뜻하는 ‘헐레벌떡’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사나이의 행동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③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사실과 개를 마음대로 길거리에 풀어 놓은 개 주인에 대한 불만이 담긴 표정이 드러나 있다.
 ⑤ ‘이놈’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흐류킨에게 위협적인 말을 건네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모습에서 그의 권위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4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을 계속 달리하고, 개의 주인이 장군 동생으로 밝혀지자 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흐류킨을 비난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개’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 오추멜로프 경감의 위선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60쪽

1 ④ 2 ⑤ 3 (1) 군중은 흐류킨을 비웃는다. (2) 권력의 편에서 있는 대중의 모습

- 1 ㉠과 ㉢은 모두 오추멜로프 경감이 개의 주인이 장군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당황하여 보인 행동들이다. ㉢은 덩다며 외투를 벗겨 달라고 한 ㉠과 상반되는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오답 피하기] ① 흐류킨이 개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사건은 이 작품의 전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발단에 해당한다.
 ② 오추멜로프 경감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 주는 것은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풍자성이 강화되고 있다.

③ 개의 주인이 장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흐류킨에게 호통을 치고, 개의 주인이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예측되면 개의 주인을 잡아 혼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반복되어 전개되고 있다.

⑤ 개가 장군 동생의 개로 밝혀지자 오추멜로프 경감은 흐류킨을 위협하며 호통을 친다.

- 2 이 글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며 웃음을 유발하는데, 대상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끼는 것은 해학에 대한 설명이므로 ⑤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개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오추멜로프 경감은 행동을 달리하는데, 이런 오추멜로프 경감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기회주의적이며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다.

③ ㉡에서는 개의 주인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외투를 벗었지만, ㉢에서는 같은 상황임에도 외투를 입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④ 풍자는 부정적 상황이나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웃음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긍정적 인 모습을 암시한다.

- 3 군중들은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흐류킨을 비웃으며 오추멜로프 경감의 행동에 동조한다. 여기에는 오추멜로프 경감과 동일하게 권력에 편승하려는 군중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담겨 있다.

대단원 평가

61~64쪽

1 ③ 2 ② 3 ③ 4 반어(법)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5 ④ 6 ② 7 ③ 8 ‘거울’은 화자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9 ③ 10 ⑤ 11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피부색을 달리하는 카멜레온처럼 오추멜로프 경감도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 즉, 작품의 제목인 ‘카멜레온’은 오추멜로프 경감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을 비유한 말이다. 12 ③ 13 ③ 14 ㉠에는 반어(법)가, ㉢에는 역설(법)이 쓰였는데, ㉠과 ㉢ 모두 화자의 의도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 ㉡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애상적 심정을 ‘잊었노라.’라고 하며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고, ㉣의 화자는 인간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순수하다.’라고 하며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ㄱ, ㄴ, ㄹ).

[오답 피하기] ㄴ, ㉣의 화자는 땅을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사고파는 세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자책하는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ㄷ, ㉡의 화자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 2 ㉠은 이별의 상황에서 ‘당신’이 찾아올 먼 후일, 곧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각 행을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 3 화자는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잊었다(㉠, ㉠)고 말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 4 화자는 실재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법을 통해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5 ㉠에서는 10행의 ‘보라.’에서 시상을 전환하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데, ㉠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드러나지 않는다.
- | 오답 피하기 |** ① ㉠은 종결 어미 ‘-다’를 통해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적인 상황을 대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의 시적 대상은 ‘아버지’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노래한 ㉠과 달리 시적 대상이 구체적이다.
 ⑤ ㉠과 ㉠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각각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6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구를 반복, 변형하는 식으로 행을 늘이는 구성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①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구를 반복, 변형하고 있을 뿐, 대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2행과 4행, 14행에 ‘길’이라는 시어가 쓰였을 뿐, 각 행에 ‘길’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④ ‘사람이 있다.’는 동일한 시구가 쓰이고는 있으나,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를 드러낼 뿐 사람들의 개성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⑤ Ⅱ보기에는 희망이 되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절망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7 ㉠의 주제는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의 화자는 절망에 빠져 있는 학생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할 수 있다.
- 8 화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 9 개가 흐류킨의 손을 문 중심 사건은 흐류킨의 말을 통해 전해질 뿐, 현재에서 과거로의 회상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⑤ 이 소설은 풍자를 통해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풍자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인물을 비판함으로써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암시한다.

②, ④ 이 소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0 ㉠을 보면 군중 속 누군가가 흐류킨의 손을 문 개의 주인이 지갈로프 장군이라고 하자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의 주인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흐류킨을 비난하며 개 주인의 편을 든다(㉠).

| 오답 피하기 | ㉠.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 주인이 지갈로프 장군인 것 같다는 군중의 말을 듣고 흐류킨을 비난한다.

㉠. 개의 주인이 장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 주인을 비난한다.

- 11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모습은 주변 상황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카멜레온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 따라서 카멜레온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오추멜로프 경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 12 ㉠과 ㉠은 운율이 담긴 언어로 내면의 정서를 표현하고, 화자라는 대리인을 통해 시인의 생각을 드러낸다. ㉠은 서술자라는 대리인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에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 오답 피하기 | ㉠. ㉠의 화자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당신’이 없는 현실을 절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화를 통해 의도를 전달하는 것은 ㉠이다.

- 13 인물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끼는 것은 해학에 대한 설명으로, 해학은 Ⅱ보기에만 사용된 표현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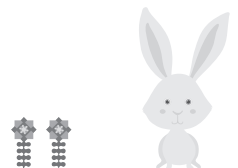
| 오답 피하기 | ① 대상을 공격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에만 해당한다.

② 대상을 동정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해학에 대한 설명으로, Ⅱ보기에만 해당한다.

④ ㉠은 풍자를 통해, Ⅱ보기는 해학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오추멜로프 경감의 기회주의적인 면을, Ⅱ보기는 가난한 흥부의 형편을 다루고 있다.

- 14 ㉠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 쓰였고, ㉠에는 표현상의 모순이 있는 역설법이 쓰였다. 이 두 표현법은 모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할 때 쓰인다.





3 설득이라는 창과 방패



개념 잡기 문제

66쪽

1 고전적 토론 2 (1) ○ (2) × 3 (1) ㉠ (2) ㉡ (3) ㉢

- 고전적 토론은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가 서로 번갈아 가며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토론을 말한다.
- (2) 반론에서 토론자의 주장에 드러난 허점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측 토론자들이 하는 역할이다.
-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는 논리적 주장을 통해 청자를 설득하는 방법(㉠), 청자의 감정이나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 화자의 인격을 통해 청자를 감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01.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하자

제재 확인 문제

67쪽

1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해야 한다. 2 (1) ○ (2) × 3 ④

- 논제란 토론하는 문제의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을 말한다. 이 토론에서는 등교 시간 조정에 관한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들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 (2)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며, 청소년기에는 수면 리듬에 변화가 생겨 아침에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등교 시간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찬성 측의 근거에 해당한다.
- 1보기에서 사회자는 찬성 측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문 확인 문제



68쪽

1 ⑤ 2 ④ 3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발언권을 부여한다.

69쪽

4 ① 5 ② 6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

70쪽

7 ① 8 불규칙, 하교 시간 9 ② 10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반대 1)

71쪽

11 ② 12 ① 13 등교 시간을 늦추면 부모들의 출근 시간과 대중교통 운행 시간 조정이 뒤따라야 하므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72쪽

14 ① 15 ③ 16 실제 사례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할 수 있다.

- 이 토론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10시로 정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지닌 토론자들이 각각 짝을 이루어 입론과 반론을 하는 고전적 토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이 토론은 고전적 토론에 해당한다. 직파식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긍정 측과 부정 측이 상대방을 논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다.
 ② 참가자는 찬성 측 토론자 두 명, 반대 측 토론자 두 명, 사회자 한 명으로 총 다섯 명이다.
 ③ 고전적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시작한다.
 ④ 고전적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 ④는 학생들이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이유에 해당할 뿐, 입론의 과정에서 '찬성 1'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아니다.
- ㉠에서 사회자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반대 측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반대 1'은 청소년기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는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 과정에서 '찬성 2'가 제시한 근거이다.
[오답 피하기] ② '반대 1'은 학생들의 일과 전체를 고려하여 등교 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③ '반대 1'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수면 부족을 가져올 만큼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반대 1'은 등교 시간을 늦추어 아침에 잠을 많이 자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 일과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⑤ '반대 1'은 학생들의 수면 부족 원인을 이른 등교 시간이 아닌 개인적 생활 습관에서 찾고 있다.
- ㉠에서는 이른 등교 시간 탓에 학생들이 허겁지겁 등교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면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지각이 잦아진다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찬성 2'는 청소년들에게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고, 잠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반대 2'는 등교 시간을 늦추었을 때 수면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반대 1'은 등교 시간을 늦추면 수면 부족이 해결될 것이라는 찬성 측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찬성 측에서 이른 등교 시간의 문제점으로 청소년의 수면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대 2'는 생활 습관 형성의 문제점과 늦어지는 하교 시간의 문제점을 근거로 들어 등교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9 ㉠와 같은 반론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주장에서 불분명한 점이나 오류를 찾아 반박해야 한다. 이때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길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고전적 토론에서는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끝난 후,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시작된다. 이는 ㉠의 사회자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1 객관적 정보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 사람은 청소년의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인용한 ‘찬성 1’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사회자는 ㉠과 ㉡에서 찬성 측 토론자와 반대 측 토론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③ ‘반대 2’는 찬성 측이 사회적 비용 발생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 시간이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침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수면 리듬을 고려한 등교 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등교 시간을 늦추면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한 후,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12 ‘찬성 1’은 청소년기의 수면 리듬을 고려하여 등교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며, 등교 시간을 10시로 하자는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3 ‘반대 2’는 등교 시간 조정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4 앞서 ‘반대 2’는 청소년의 올바른 학습 태도와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 2’는 반대 측 역시 생활 습관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15 ㉢에서 사회자는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해 진행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의 마무리를 알리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상대측 주장에서 오류를 찾아 반박하는 것은 반론의 과정에서 토론자가 하는 역할이다.

②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규칙을 안내하는 것은 토론을 시작할 때 사회자가 하는 역할로, ㉢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은 아니다.

④ 사회자가 토론의 진행 순서를 인지시키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은 아니다.

⑤ 토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사회자가 토론의 논제를 알리고, 토론의 개회를 선언하기에 앞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16 ㉠과 같이 등교 시간을 늦추어 효과를 본 나라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효과의 내용을 언급하면, 등교 시간을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쪽집게 예상

73~74쪽

1 ④ 2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아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3 ④ 4 ③ 5 ⑤ 6 ④ 7 ④ 8 ④ 9 ‘찬성 2’는 등교 시간을 늦출 것을 주장하기 위해 ㉠과 같이 청소년기의 수면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 고전적 토론은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논제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펼치고,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는 말하기이다. 그러므로 토론을 할 때에는 상대측의 의견에서 불분명한 점이나 오류 등을 찾아 반박하며 자기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토론자들은 발언 시간과 순서를 준수하며 주장을 펼쳐야 한다.

② 토론의 진행 과정에서 상대측 토론자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감정을 앞세워 화를 내거나 상대측을 비방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③ 토론자들은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⑤ 토론을 할 때에는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측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상대측의 의견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주장의 오류나 한계를 찾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2 ‘찬성 1’은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반대 2’는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하교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더 불규칙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등교 시간을 현재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④는 ‘반대 2’가 제시한 근거가 아니라 ‘찬성 1’이 입론의 과정에서 제시한 근거에 해당한다.

4 ‘찬성 1’은 ‘밤에 늦게 자는 것이 과연 청소년들의 생활 태도 때문일까요?’라고 의문을 던지며, 반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여러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왔을 때 잠이 덜 깬 상태로 오전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개인적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청소년의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는 등교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멜라토닌’과 같은 화학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였지만, 이 용어의 뜻을 몰라도 청자들이 ‘찬성 1’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 양측의 토론자가 교차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이다. 여러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토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6 ㉢에서 ‘반대 1’은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토론의 절차 중 상대에 대한 반론의 과정에 해당한다.



- 7 '반대 2'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등교 시간을 늦추자고 한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모든 일과를 생리적 흐름에 맞춰 바꿀 수 없다는 점과 부모들의 출근 시간과 대중교통 운행 시간 조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유정 : '반대 2'는 모든 일과를 생리적 흐름에 맞추어 바꿀 수 없다는 점과 등교 시간 조정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진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을 인용한 사람은 '반대 1'이다.

- 8 논제는 토론하는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제언이나 주장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분명히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④의 경우 공통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으므로 토의의 주제로 적합하다.

- 9 ㉔은 잠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한다. '찬성 2'는 등교 시간을 늦추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수면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례로 제시하여 충분한 수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75쪽

1 ③ 2 ③ 3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바로는,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한다.

- 1 토론에서 사회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토론의 진행 과정에 따라 공정하게 토론을 이끌어 갈 뿐, 의견 대립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열 시로 정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들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④ 공정한 토론을 위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인원은 각각 두 명씩 동일하게 선발해야 하며, 한쪽으로 발언이 치우치지 않도록 발언 시간과 순서에 관한 토론 규칙도 정해야 한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야 한다.

- 2 반대 측은 등교 시간을 열 시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며, 등교 시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학교 시간이 늦어져, 찬성 측이 주장하는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등교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수업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3 ㉔에서 '찬성 2'는 "수면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바로는,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설득하는 말하기를 할 때 이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객관적인 근거로 사용하면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02. 광고, 우리를 설득하다

제재 확인 문제

76쪽

1 논리적 설득 방법, 감성적 설득 방법, 인격적 설득 방법 2 영상 매체(텔레비전) 3 (1) ○ (2) × 4 ⑤

- 1 화자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설득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논리적 설득 방법, 감성적 설득 방법, 인격적 설득 방법이 있다.
- 2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는 문자, 음성,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광고를 듣고 보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 3 (2) 인터넷 매체는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광고를 구성하고, 음성 매체 역시 음악과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광고를 구성한다.
- 4 광고를 볼 때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사실인지,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광고의 출연자가 지닌 인지도와 상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과는 관계가 없다.

본문 확인 문제



77쪽

1 ⑤ 2 ㉔ → ㉑ → ㉒ → ㉓ 3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8쪽

4 ② 5 광고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이다. 6 상업 광고 7 ④

79쪽

8 ⑤ 9 ⑤ 10 설득, 비판적 11 링크(link)

80쪽

12 ⑤ 13 ③ 14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은 설득의 개념과 설득하는 말을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는 설득하는 말하기의 단계에 대해, ㉢는 대표적인 설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 모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설득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 ② ㉢에서 대표적인 설득 방법에는 논리적 설득 방법, 감성적 설득 방법, 인격적 설득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에는 설득하는 말하기의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설득하는 말하기는 ‘인식의 단계 → 이해의 단계 → 동의의 단계 → 행동 변화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④ ㉡에서 설득하는 말을 할 때에는 설득하는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후, 청자의 태도, 행동 등을 고려하여 설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2 설득하는 말하기는 ‘청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단계’, ‘청자가 화자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이끄는 단계’, ‘청자에게서 화자가 의도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 3 논증에 논리적 오류가 있으면 청자가 화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청자를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청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4 ㉢에서 광고를 제작할 때에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문자, 음성, 이미지, 음악 등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 광고를 만들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광고의 구성 요소에는 문자, 음성, 이미지, 음악 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광고 제작자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설득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광고를 듣거나 볼 때 광고에 사용된 설득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에서 인격적 설득 방법을 통해 청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화자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5 광고의 목적은 정보 제공과 설득이다. 특히 설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광고에서는 여러 가지 광고 요소를 활용하여 광고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 6 ㉢에서는 광고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광고는 목적에 따라 상업 광고, 기업 광고, 공익 광고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대상을 선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는 상업 광고이다.

- 7 ㉢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광고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8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려면 제품과 관련된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제품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 9 음성 매체를 통한 광고는 청각만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해야 하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노래나 음악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의 설득 전략이다.

- ② 알림창이나 링크(광고로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곧장 이동하는 방식)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설득 전략이다.
③ 인상적인 이미지와 문구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의 설득 전략이다.
④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영상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설득 전략이다.

- 10 ㉢에서는 광고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거나 과장된 정보, 허위적인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비판적인 광고 수용 태도가 필요함을 전하고 있다.

- 11 ‘링크(link)’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파일이나 문자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 놓은 홈페이지 간의 관련’을 뜻한다. 인터넷 매체에서는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 링크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 12 ㉢에서는 넘쳐 날 정도로 많은 광고들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광고의 홍수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④ ㉢에서 상품 판매가 주된 목적인 상업 광고에서는 해당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구매하도록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소비자를 설득하므로, 광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② ㉢에서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광고에 설득당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③ ㉢에서 광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정서에 맞추어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서 대중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하였다.

- 13 주변의 다양한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광고에서 제시하는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광고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4 ㉢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는 현대인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81쪽

1 상대의 감성에 호소하여 설득하기 2 ① 3 ②

- 1 ‘한 후보자’는 조장 연설에서 에디슨의 일화를 제시하며 자신도 에디슨처럼 조를 위해 멋진 일을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청자가 화자의 주장이나 의도를 받아들이면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청자의 욕구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방법에 해당한다.
- 2 ㉠의 라디오 광고와 텔레비전 광고는 모두 저탄소 녹색 세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의 방법들을 제시한 공익 광고로, 안전 운전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3 ㉡에는 라디오 광고와 텔레비전 광고가 제시되어 있다. 두 광고에서는 각각 같은 말인 ‘~잡지 말고, ~잡으세요!’, ‘~밟지 말고, ~밟으세요!’ 등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참신한 방법을 통해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즉집게 예상

82~83쪽

1 ⑤ 2 ③ 3 ④ 4 광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5 ② 6 제시된 광고는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7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는 제한된 지면을 활용해야 하므로 인상적인 이미지와 글자체, 글자 크기, 문구 등을 사용한다. 8 ⑤

- 1 ㉠에서 상업 광고는 설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부풀리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광고를 수용하지 말자고 하지는 않았다.
- 2 ㉡에서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 광고에서는 인터넷 매체와 마찬가지로 문자, 음성,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시·청각적 요소를 혼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인쇄 매체 광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가 제작된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광고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고자 할 뿐이다.
 ② 제품과 관련된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출연자로 내세워 제품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작할 때 시·청각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텔레비전 광고가 항상 인터넷 매체 광고와 함께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⑤ 인물의 목소리, 음향 효과, 음악과 같은 청각적 요소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를 통한 광고이다.

- 3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에서는 인물의 목소리(음성), 음향 효과, 음악과 같은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고,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와 인터넷 매체에서는 문자, 음성,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혼합하여 활용한다.
- 4 ㉠에서는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설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와 비판적인 광고 수용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5 ㉡에서 광고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광고 수용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임을 언급한 것과, ㉠에서 광고의 목적이 설득임을 언급한 것을 통해 광고의 주된 목적이 설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 비판적인 광고 수용 태도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을 통해 광고가 모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6 제시된 광고는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언어폭력 문제를 지적하는 공익 광고이다. 이와 같은 공익 광고는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작된다.
- 7 제시된 매체는 인쇄 매체이다. 인쇄 매체는 제한된 지면을 활용해야 하므로 인상적인 이미지와 글자체, 글자 크기, 문자 등을 사용한다.
- 8 ㉠에서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하는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광고들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두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84쪽

1 ⑤ 2 ③ 3 노벨상 수상자인 S 박사는 침대와 관련된 전문가인가?

- 1 제시된 광고는 손잡이를 잡은 아이의 팔에 근육이 잡힌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하여 난폭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 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이다. 광고에서 아이의 애처로운 표정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우락부락하게 근육이 발달한 팔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안전 운전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다.

② ‘아빠 차만 타면’이라는 문자와 아이의 팔에 우락부락한 근육이 잡힌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인쇄 매체 광고이다.

③ 어린아이의 얼굴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근육질의 팔을 합성한 과장된 이미지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면서, 광고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④ 순수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등장시켜 어른들에게 난폭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 2 ㉠의 앞부분에서는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광고에서 제시한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 고급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다는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편향적 사고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3 『보기』의 광고는 노벨상 수상자인 전문가를 내세워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S 박사’가 정확히 어떤 분야의 수상자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광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벨상 수상자인 ‘S 박사’가 침대 관련 전문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단원 평가

85~88쪽

- 1 ㉣ 2 ㉤ 3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춰야 한다. 4 ㉣ 5 ㉢ 6 ㉠ 7 반대 측 역시 청소년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8 ㉤ 9 ㉤ 10 ㉡ 11 광고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한다. 광고에 사용된 설득 방법을 파악한다. 12 ㉣ 13 ㉣ 14 저탄소 녹색 세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5 ㉠ 16 ㉣
- 1 토론은 논제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지닌 토론자들이 각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토론을 할 때 상대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였는지를 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에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론했는가?’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자의 토론 태도를 평가해야 한다.
- 2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정리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의 입장을 덧붙이거나 논제에 대한 주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에서 사회자는 ‘찬성 측 토론자는 청소년들의 건강 유지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등교 시간을 지금보다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라며 찬성 측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 ㉡, ㉢ ㉤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찬성 측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며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짚어 주며 진행하고 있다.
- ㉣ ㉤에서 사회자는 논제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의 끝을 알리고 있다.
- 3 ㉢에서 ‘찬성 1’은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며,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추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4 ㉠은 등교 시간을 늦추면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찬성 측 의견에 대해 반문한 것이다. ‘반대 2’는 등교 시간을 10시로 정해 아침 기상 시간이 늦어진다면 오히려 더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생활 습관이 더 불규칙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 5 제시된 말하기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씩 한편이 되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고전적 토론이다. 이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입론과 반론을 해야 하며, 그 횟수도 정해져 있다.
- 【오답 피하기】 ㉠ 고전적 토론에서는 찬성 측 두 명, 반대 측 두 명으로 토론자를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 ㉡ 고전적 토론에서 양측의 토론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세워 상대측을 설득하려고 하므로, 주장과 근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 고전적 토론에는 상대방의 주장에서 불분명한 점이나 오류를 찾아 반박하는 ‘반론’의 과정이 있다.
- ㉤ 고전적 토론은 양측의 토론자가 상대를 설득하여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 6 ‘찬성 2’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등교 시간을 늦추어 효과를 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등교 시간을 10시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7 ‘찬성 2’는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한 후, 반대 측 역시 청소년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8 ㉠의 앞부분에서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하여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의미를 지닌 ㉤가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먼 곳에 있는 일보다 더 친하게 되어 서로 도우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9 ㉢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광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광고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을 뿐, 광고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에서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보거나 듣는 사람을 설득하여 광고가 의도한 대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 ㉢에서 주변의 다양한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광고에서 제시하는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 ㉤에서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는 제한된 지면을 활용하므로, 이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의 설득 방법을 달리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 ㉣ ㉤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로 제품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0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의 설득 방법이다. 음성 매체에서는 노래나 음악 등의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11 광고를 듣고 보는 사람들은 광고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광고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광고에 사용된 설득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12 제시된 광고에서는 ‘ 쌤, 안녕하세요? 꾸벅~m(-..-)m m(_ _) m’과 같이 파괴되고 있는 우리말 사례와 함께 ‘우리 어릴 적 이렇게 배웠나요?’라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광고를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 보게 하고 있다.

13 강조할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과 같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주로 활용하는 설득 방법이다. 텔레비전 광고는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이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인 자막을 활용할 수 있지만, 라디오 광고는 음성 매체를 통한 광고이므로 청각적 요소만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텔레비전 광고로, 강조할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영상과 음향을 활용하여 보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② ㉡는 여자, 남자, 아이의 다양한 음성을 활용하여 지루함을 해소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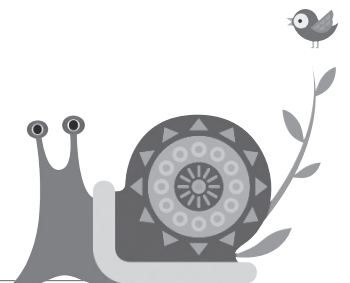
③ ㉠과 ㉡ 모두 ‘~말고 ~세요’의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세상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⑤ ㉠과 ㉡ 모두 같은 말인 ‘~뺏지 말고, ~뺏으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등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참신한 방법을 통해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14 ㉠은 텔레비전 광고, ㉡는 라디오 광고이다. ㉠과 ㉡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만 다를 뿐, 모두 저탄소 녹색 세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15 제시된 광고는 경로석과 일반석 비율이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한 포스터(인쇄 광고)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16 제시된 광고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 광고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상업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없다.





4 읽기에 접속하시겠습니까?



개념 잡기 문제

90쪽

1 ③ 2 읽기 전 3 ⑤ 4 읽기 목적

- 1 읽는 중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과 함께 구조를 파악하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글을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배경지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읽기 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한다.
- 2 ‘읽는 목적 설정하기, 훑어보기, 글의 내용 예측하기’는 읽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 3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을 경우 앞의 과정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다른 읽기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앞의 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 목적에 따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어야 한다.

01. 읽기 과정의 설계도

제재 확인 문제

91쪽

1 ④ 2 읽기 3 ① 4 (1) × (2) × (3) ○ (4) ○

- 1 이 글에 읽기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2 읽기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글의 내용을 새로운 의미로 읽어 내는 과정이다.
- 3 읽기 전 단계에서는 제목이나 목차 등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 읽는 중 단계의 활동이고, 글의 내용 요약하기, 읽은 내용 토론하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정리하기는 읽은 후 단계의 활동이다.
- 4 (1) 목차로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읽기 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2) 낱말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사전에서 낱말의 의미를 찾아 보아야 한다.

본문 확인 문제



92쪽 1 ⑤ 2 ② 3 배경지식

93쪽 4 ③ 5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단계로 나뉜다. 6 ⑤ 7 ⑤

94쪽 8 ④ 9 ② 10 자신의 읽기 과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다. 11 ①

- 1 기술은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을 말한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글을 읽는다고 해서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읽기의 출발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심화적 읽기 방법이다.
- 3 독자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나 글쓴이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새로운 의미로 읽어 낼 수 있다.
- 4 읽기의 목적에 따라 글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글을 읽는 목적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5 읽기는 일반적으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달라진다.
- 6 읽는 중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해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글쓴이가 압축하거나 생략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을 배제하며 읽는 것은 올바른 읽기 방법이 아니다.
- 7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어 글쓴이의 생각을 해석하고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읽는 중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 8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읽기 과정에 관련한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읽기 목적에 맞게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9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일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글을 읽은 후에 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10 능숙한 독자는 글 전체를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①에서는 ‘~듯이’라는 연결어를 활용한 직유법을 통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상징 :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 ③ 귀납 :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④ 대조 :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를 것을 검토함.
 ⑤ 정의 :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학습 활동 짚고 가기

95쪽

1 ⑤ 2 ② 3 ④

- 1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해충의 종류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읽은 내용에 대해 다른 독자들과 토의함으로써 내용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은 읽은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3 이 글은 원에 작물에 살포되는 화학 농약인 살충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해충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자연적 방제 방식인 천적을 활용한 해충 퇴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집게 예상

96~97쪽

1 ⑤ 2 ② 3 ④ 4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을 설명한다. 5 ③ 6 ② 7 ③ 8 ③ 9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 전체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한다. 10 ⑤

- 1 글쓴이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은 논설문이다.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다.
 2 ㉠를 살펴보면 읽기의 시작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은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선 읽기 활동이다.
 3 ㉡는 읽기 과정 중 읽기 전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의 읽기 단계에서는 작품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고, 작품의 제목이나 목차, 삽화 등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④는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으로, ㉡의 읽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에서는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 ㉣에서는 읽은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상 ㉣ 앞에는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5 읽기 전에 예상한 내용들이 맞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즉 ③은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 6 ㉤를 통해 읽는 중 단계에서는 중심 내용과 함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④ 글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고, 제목과 목차를 통해 글의 전개를 예측하는 것은 읽기 전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③, ⑤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고, 다른 독자와의 토의나 토론을 통해 글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읽은 후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 7 ㉤를 통해 글의 일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잠깐 유보하고 읽기를 계속한 다음 전후 맥락을 통해 글의 의미를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8 ㉠와 ㉡에서는 읽기 과정을 점진하고 조절한다는 말의 의미와 읽기 과정을 점진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 ㉡의 소재목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9 읽기 과정을 점진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 전체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에서 능숙한 독자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⑤이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98쪽

1 ③ 2 ② 3 책의 내용과 관련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어 글쓴이의 생각을 해석하고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1 이 글에서는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으로, 밑줄 긋기와 메모하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글쓴이가 제시한 방법에 의문을 품고,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글을 읽는 태도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재목을 넣어 형식적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소재목을 넣은 이유를 궁금해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 글은 단계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활용해야 하는 읽기 방법이 구분될 수 있도록 소재목을 활용하고 있다.

②, ④, ⑤ 모두 이 글에 제시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질문이다.

- 2 ②에 제시된 읽기 방법은 배경지식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되는 읽기 방법이다.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목차를 살피는 활동을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읽기 전 삽화를 살펴보면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③ 읽는 중에는 중요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 ④ 읽는 중에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⑤ 읽은 후에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감동받았던 내용 등을 독후감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보기』에서 글쓴이는 배경지식을 활용한 작품 감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올바른 읽기 방법을 서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읽는 중 단계의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읽는 중에 “책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어 글쓴이의 생각을 해석하고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02. 창의적인 두뇌

제재 확인 문제

99쪽

1 ④ 2 대뇌 우반구 3 (1) × (2) ○ (3) × 4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여행, 독서

- 1 전전두엽은 뇌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전전두엽의 발달을 통해 우리의 뇌는 성숙하게 된다.
2 천장의 높이와 창의성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천장의 높이가 낮을수록 단순 연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성과가 나타났고, 천장의 높이가 높을수록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잘 풀었으며, 계속된 연구로 높은 천장이 사람의 대뇌 우반구를 활성화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3 (1) 언어와 기억은 측두엽에서 담당한다.
(3) 13~25세에 급속히 발달하는 것은 전전두엽이다.
4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일, 책을 읽는 일은 모두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본문 확인 문제



100쪽

1 ① 2 ⑤

101쪽

3 ① 4 ⑤ 5 청소년기에는 도덕적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아직 완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②

102쪽

7 ③ 8 ③ 9 ③ 10 전전두엽

- 1 소크는 유럽(이탈리아)에서 백신에 대한 착상을 떠올렸지만, 백신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개발하였다.
2 추상적인 개념을 연결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문제는 천장의 높이가 높을 때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 3 ㉠에서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의 뇌는 무게가 약 1.4kg 정도라고 하였다. 즉, 뇌는 우리 몸의 2%를 차지할 뿐이므로, 뇌가 사람 몸무게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감각 기관은 후두엽, 측두엽을 포함한 뒤쪽 대뇌 피질에서 담당하고(ㄴ), 대뇌의 겉을 덮고 있는 대뇌 피질은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이다(ㄷ).

【오답 피하기】 ㄱ. 언어와 기억은 측두엽에서 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동일하다.

ㄷ. 고등 사고는 전두엽에서 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뇌 피질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5 ㉠, ㉡를 살펴보면 도덕적 의사 결정은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 13~25세까지의 시기에 전전두엽이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기는 전전두엽이 아직 완숙하지 못한 시기라고 하였다.

- 6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서 제시하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에서는 대뇌 피질을 분류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7 ㉢에서는 첫 문장에서 질문을 던진 후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ㄴ), 한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전두엽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ㄷ).

【오답 피하기】 ㄱ. ㉢에는 실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ㄷ. ㉢는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8 전전두엽은 방법을 알려 주고 그 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궁리할 때 발달한다.

- 9 전전두엽이 뇌의 다른 영역과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을 때 성숙한 사고와 더불어 독창적인 발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전두엽이 발달한다고 해서 지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 10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하거나 독서를 하면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다.

죽집게 예상

103~104쪽

1 ① 2 ⑤ 3 『보기』의 자료는 ㉠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와 함께 ㉡를 읽으면 높은 천장이 대뇌 우반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① 5 ⑤ 6 ② 7 ⑤ 8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1 설명문을 읽을 때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메모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목차 등을 통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생각해 보고(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다(ㄷ).

오답 피하기 ㄱ.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것은 읽는 중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ㄷ. 두점엽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보는 활동은 읽은 후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3 『보기』에는 대뇌 우반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를 ㉠의 참고 자료로 제시하면 대뇌 우반구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활발해진다는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어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4 언어와 기억은 대뇌 옆 부분인 측두엽이 담당한다.

오답 피하기 ㉡. ㉣ 이마 바로 뒤쪽에 자리한 전전두엽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비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 책을 읽을 때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생략된 내용을 상상하는 일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전전두엽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일을 맡는다고 하였다.

5 글쓴이는 전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 찬 환경에 자주 놓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여행, 독서 등을 통해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에서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20%가 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사고 과정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 ㉡에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관장하는 뇌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 ㉢를 보면 전전두엽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발달한다고 하였다.

㉣ ㉣에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뇌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깊어졌다고 하였다.

6 ㉠를 살펴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성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두개골을 열지 않고 뇌 안의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

㉢ 사람은 사고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람 이외에 동물들도 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은지 질문할 수 있다.

㉣ 독서나 여행이 전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독서나 여행이 전전두엽 이외에 다른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 ㉤에서는 대화, 여행, 독서가 전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활동 외에 전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7 제시된 질문은 이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뇌 과학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8 전전두엽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발달하므로,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얘기치 못한 문제들을 극복해 봄으로써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05쪽

1 ㉤ 2 ㉤ 3 높은 천장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뇌 우반구를 활성화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1 ㉠에서는 청소년기에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에서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하기에 이 시기에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는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천장 높이와 창의성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제 이루어졌던 실험과 그 결과를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뇌는 우리 몸의 2%를 차지하지만,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2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뇌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뇌의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전전두엽이 13세부터 25세 때까지 급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글을 읽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읽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읽기 방법이다. 따라서 ㉤처럼 글을 읽고 난 후 글을 읽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이 아니다.

3 과학자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연결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문제는 천장의 높이가 가장 높은 3m일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낸 후, 연구를 계속하여 높은 천장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뇌 우반구를 활성화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대단원 평가

106~108쪽

1 ㉡ 2 ㉣ 3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4 ㉠ 5 ㉢
 6 ㉤ 7 도덕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8 ㉤ 9 ㉢
 10 ㉢ 11 측두엽은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고등 사고를 담당한다.



1 ㉠~㉣는 읽기의 단계에 대해 설명한 글이고, ㉡는 천적을 통한 해충 방제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둘 다 글쓴이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글의 흐름을 훑어보며 곤충과 천적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읽기 전 단계에서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을 보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글을 읽는 목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③ ㉢를 보면 글을 읽을 때 중심 내용과 함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고,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어 글쓴이의 생각을 해석하고 글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를 보면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물이나 해충 외의 천적, 인간에게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은 문맥상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인데, ①의 '대비해'는 서로 맞대어 비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②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의 의미로 쓰였다.

④ '먼 곳을 바라볼. 또는 그런 경치.'의 의미로 쓰였다.

⑤ '액체, 가루 따위가 흩어져 뿌려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5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 자주 노출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여행을 떠나며 책을 읽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이 모두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을 통해 소크 연구소의 천장 높이는 일반적인 가옥의 천장 높이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를 통해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노력이 전전두엽뿐만 아니라, 전전두엽이 뇌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를 통해 언어와 기억은 측두엽에서 담당하고, 고등 사고는 전두엽에서 담당하므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전전두엽은 13세부터 25세 때까지 급속히 발달하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때때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글을 읽은 후에는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 자료를 더 찾아보거나(㉠), 읽은 내용과 관련해 친구들과 토의해 볼 수 있다(㉢).

7 ㉠과 ㉢를 보면 전전두엽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8 ㉠, ㉠과 ㉢, ㉢는 모두 설명문이다. 설명문을 쓸 때에는 독자에게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9 독자가 글을 읽을 준비를 하는 것은 읽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읽기 전 단계의 읽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뇌의 각 영역별 역할은 ㉢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에서 글쓴이가 압축하거나 생각한 내용은 전후 문맥에 따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⑤ 읽은 내용을 되짚어 보는 단계는 읽은 후 단계로, ㉣를 통해 읽은 후 단계의 읽기 방법을 알 수 있다.

10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그러나 ㉠과 ㉣는 각각 읽는 중 단계와 읽은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③은 이를 적용한 읽기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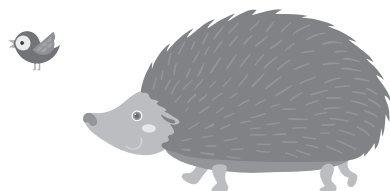
| 오답 피하기 | ① 전전두엽의 역할에 대해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읽은 후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② 대뇌 피질의 각 영역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④ 전전두엽과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은 읽은 후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⑤ 일상 속에서 전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읽은 후 단계의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11 ㉢를 보면 대뇌 옆 부분인 측두엽은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고등 사고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5 문학으로 만나는 삶과 역사



개념 잡기 문제

110쪽

1 ② 2 창작 배경 3 ④

- 1 문학 작품에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처했던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 2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파악하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고(ㄱ),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 작품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ㄴ). 또한 그것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본다(ㄷ).

01. 훈민가

제재 확인 문제

111쪽

1 ③ 2 노인에게 집을 풀어 자신에게 달라고 함(노인의 집을 대신 들어 주려고 함) 3 유교 4 (1) × (2) × (3) ○

- 1 호미로 논을 매고, 뽕을 따서 누에에게 먹이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가 농업 중심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길'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 2 화자인 젊은이가 청자인 노인에게 집을 달라고 한 것은 노인의 집을 대신 들어 주겠다는 의미로, 이러한 화자의 행동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이 담겨 있다.
- 3 '훈민가'의 13번째 수에서는 근면한 생활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16번째 수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이 시조를 통해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와 도덕을 권장하고자 하였다.
- 4 (1) 13번째 수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청유의 어조로 말하고 있다.
(2) 16번째 수는 노인에 대한 공경(경로사상)을 노래하였다. 근면한 생활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노래한 것은 13번째 수이다.

본문 확인 문제



113쪽

1 ① 2 ④ 3 ① 4 상부상조 5 ③ 6 ③ 7 ②

- 1 ㉠은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와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권장하고 있고, ㉡는 노인에 대한 공경(경로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불교 사상이 아닌 유교적 윤리와 도덕에 해당한다.

- 2 ㉠의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는 자신감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은 젊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 나타난 호미로 논매기, 뽕 따기, 누에치기를 통해 농업 중심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화자가 늙은이에게 집을 풀어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노인에 대한 공경을 중시하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화자는 자신의 논을 다 매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논도 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중시하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화자는 날이 밝자마자 일터로 나가자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근면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 3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으로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ㄱ). 화자는 호미로 논매기, 이웃의 논매기, 뽕 따기, 누에치기 등 오늘 자신이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ㄴ).

| 오답 피하기 | ㄷ. '~스라'는 청유형 어미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느껴진다고 볼 수 없다.

ㄹ. 화자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을 다 매고 나면 이웃의 논매기를 돕겠다고 하였다.

- 4 ㉠의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논을 다 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논도 매어 주겠다고 하였다. 이는 서로 돕는다는 의미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 5 ㉠의 화자가 청자인 '늙은이'에게 집을 풀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ㄴ). 또한 노인의 집을 대신 들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 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ㄷ).

- 6 ㉡는 '나(저)는 젊었으니 돌을 든다 해도 무겁겠습니까?' 또는 '나(저)는 젊기 때문에 돌을 들어도 무겁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상 적절하다.

- 7 설의법은 누구나 아는 사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해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방법이다. ㉠은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은 젊기 때문에 돌을 든다고 해도 무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계 예상

114쪽

1 ④ 2 ① 3 ④ 4 백성들에게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권장하기 위해 이 시조를 창작하였다. 5 ⑤

- 1 '훈민가'는 평시조이자 두 수 이상의 평시조가 모여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초장이나 중장 가운데 한 장이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길어진 것은 엽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2 ㉠의 화자는 늙은이에게 짐을 풀어 달라고 말하는 젊은이이다. 늙은이는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에 해당한다.
- 3 ㉠에서 화자는 늙은이에게 짐을 풀어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며 노인의 짐을 기꺼이 대신 들어 주려고 한다. 이러한 화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노인에게 대한 공경을 중시했던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 화자의 모습만 드러날 뿐, 화자가 가난한지 부유한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논매기, 뽕 따기 등을 하며 열심히 일하는 화자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② 호미, 논 등의 시어를 통해 ㉠에 농업이 발달했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대외 무역이 발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의 화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 ⑤ ㉠의 화자는 늙은이의 짐을 대신 들어 주려고 한다. 이는 노인 공경을 중시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 4 ㉠에서는 근면한 생활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권장하고 있고, ㉠에서는 노인에게 대한 공경(경로사상)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백성들에게 널리 권하기 위해 이 시조를 창작하였다.
- 5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해야 한다. 따라서 ㉠과 ㉠에서 종장의 첫 음보인 '올 길에'와 '늬기도'는 각각 3음절로 고정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15쪽

- 1 ⑤ 2 ④ 3 ⑤ 4 ㉠의 주제는 근면한 생활과 상부상조하는 정신, ㉠의 주제는 노인에게 대한 공경으로, 두 수 모두 백성을 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보아 작품의 제목인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노래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 1 ㉠에서 화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과 이웃의 눈을 매고 누에를 치는 모습을 통해 농업을 근간으로 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농사일을 권장하기는 하나,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데서 느끼는 보람 등 노동의 고귀함과 관련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즉, 작가는 ㉠을 통해 근면한 생활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강조하려고 했을 뿐, 노동의 고귀함을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 | 오답 피하기 |** ① '13번째 수'는 근면함, 상부상조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16번째 수'는 경로사상(노인에 대한 공경)과 같은 유교적 덕목을 주제로 한다.
- ② 이 작품은 3장 6구로 구성된 평시조들이 '훈민가'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엮인 연시조로, 총 16수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보기』에서 이 작품의 작가인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다고 하였다.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는 사회와 당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고, 정철이 부임한 강원도는 산간 지방이라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정철은 유교적 도리의 실천이나 향촌 질서의 확립을 생활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④ '훈민가', '경민가', '권민가'는 모두 백성에게 교훈을 준다는 의미로, 당대 백성들이 이 작품을 통해 유교적 가치에 교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상부상조(相扶相助)'는 서로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이다. ㉠의 화자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후, '네 논도 매어 주마.'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신의 일을 끝내고 다른 사람의 농사일까지 도우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① 주경야독(晝耕夜讀) :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 있게 공부한다는 의미이다.
- ② 안빈낙도(安貧樂道) :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킨다는 의미이다.
- ③ 살신성인(殺身成仁) : 자신의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한다는 의미이다.
- ⑤ 능소능대(能小能大) : 모든 일에 두루 능하다는 의미이다.

- 3 '오륜가'는 삼강오륜의 유교 사상 중 오륜의 덕목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노래로 표현한 교훈적 시조이다. '오륜가'는 서사 1수를 포함하여 총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제시된 6수는 연장자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를 노래한 내용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탐구

오륜가 _ 주세붕

갈래	연시조(총 6수)	성격	교훈적, 설득적, 계도적
제재	오륜(五倫)		
주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교훈 강조		
특징	• 교훈적인 의도를 직설적으로 표현함 • 유교 이념의 전파를 목적으로 창작되어 설교조의 어조로 시상을 전개함		

- 4 '훈민가'는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강원도 도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창작한 목적시이다. 작가는 근면함과 상부상조, 경로사상 등의 유교적 가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은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와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은 경로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02. 최척전

제재 확인 문제

116~117쪽

- 1 ⑤ 2 돈우 3 ④ 4 상업과 대외 무역이 발달하였다.
5 ② 6 ⑤ 7 (1) × (2) ○



- 1 최척은 전쟁(정유재란)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여러 나라를 떠돌며 힘들게 생활하지만, 결국에는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 최척이 주우와 함께 장사를 하기로 결심한 때는 여유문이 죽고 난 이후이다.
- 2 늙은 일본 병사인 돈우는 불심이 깊고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돈우는 포로로 붙잡은 옥영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며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다.
- 3 최척과 남원에서 살던 옥영은 전쟁이 일어나자 지리산으로 피신한다. 그러다가 왜병 돈우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가고, 그와 해외 무역을 다니던 중 안남에서 우연히 남편 최척을 만난다. 이후 두 사람은 중국 항주(㉡)로 가 둘째 아들 몽선을 낳고 살게 된다.
- 4 배를 타고 외국을 다니며 장사하는 최척과 옥영의 모습을 통해 상업과 해외 무역이 활발했던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5 ‘최척전’은 임진왜란 휴전 교섭이 결렬된 뒤, 선조 30년(1597)에 일본이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인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이다.
- 6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 가족 이산의 아픔을 겪지만, 이를 불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7 (1) 이 작품은 전쟁 때문에 최척의 가족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사랑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낸 소설이다.

본문 확인 문제



118쪽	1 정유재란 2 ⑤ 3 ②
119쪽	4 ⑤ 5 ④ 6 ⑤
120쪽	7 ① 8 왜적이 늙고 병든 최척의 아버지와 장모를 심하게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① 10 ④
121쪽	11 ① 12 ② 13 ⑤
122쪽	14 ④ 15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16 ⑤
123쪽	17 ② 18 ⑤ 19 ⑤ 20 일본 배 안에 (최척의 아내인) 옥영이 있다.
124쪽	21 ④ 22 ① 23 ①
125쪽	24 ⑤ 25 ③ 26 자신이 그동안 자식처럼 아꼈던 옥영과의 관계가 재물로 정리된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했기 때문이다. 27 ③

- 1 이 작품은 1597년에 발발한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여 최척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여러 위기를 극복하며 재회하는 과정을 그려 낸 고전 소설이다.
- 2 ㉠에서는 ‘1597년 8월에 남원이 왜적에게 함락되었다.’를 통해 역사적 사건인 정유재란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피란을 가게 된 최척 일

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에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최척 일가는 전쟁 때문에 지리산 연곡으로 피란하였다.

② 시간적 배경은 1597년 8월이다.

③ 공간적 배경은 남원, 지리산 연곡 일대이다.

④ 역사적 상황은 1597년 8월에 남원이 왜적에게 함락된 사건인 정유재란이다.

- 3 최척은 먹을 것을 구하고 왜적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리산을 빠져나왔다.
- 4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 등을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②, ③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외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관찰자적 시선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④ 작품 속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5 적병의 칼에 맞아 넘어진 춘생은 목숨을 잃게 된다. 최척의 가족들은 전쟁 때문에 왜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뿐 춘생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③ 왜적들은 장정들은 모두 묶어 배에 태워 가고, 노인이나 다친 사람들은 섬진강 쪽에 남겨 두었다.

②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최척은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시체가 되어 길가에 버려졌다.

- 6 최척은 춘생의 이야기를 들은 후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애태우다가 기절하고 만다. 이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 등이 담긴 행동이지 몽식을 엮고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춘생을 원망해서가 아니다.

- 7 ㉠에서 최척이 명나라 장수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나, ㉡에서 최척의 아버지와 장모가 손주 몽식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 전개에 해당한다.

- 8 최척의 아버지와 장모 심씨 부인은 늙고 병들었던 탓에 왜적의 감시에서 멀어질 수 있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탈출할 수 있었다.

- 9 최척이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사정을 명나라 장수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 뿐, 명나라 장수에게 중국어를 익히게 된 사연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은 왜적의 침략으로 겪게 된 그간의 사건들과 최척의 심정 및 처지 등을 의미한다.

- 10 직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해 주는 방법이다. ㉡에서는 잘생기고 생각이 깊은 데다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고, 한문을 잘하는 최척의 인물됨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고 있다.



11 늙은 병사인 돈우가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과 옥영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앞일을 계시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력이 컸던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2 옥영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앞으로의 일을 계시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력이 컸던 당시 사회·문화적 현상을 드러내는 것일 뿐, 부처가 꿈에 나타난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삶의 의미를 잃은 옥영의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란 옥영과 최척의 만남을 암시한다.

④ 남자인 채한 거짓말이 들리지 않기 위해 옥영은 자신이 약골이라 병이 많고 주로 집안일을 해 왔다고 말을 한다. 이런 옥영의 말을 들은 돈우는 옥영을 더욱 불쌍히 여겨 잘 보살펴 주었다. 이를 통해 인정 많고 자상한 돈우의 성격을 알 수 있다.

⑤ 외국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돈우의 모습을 통해 대외 무역이 성행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13 자신이 여자임이 알려지면 남자보다 약한 존재로 보고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기에 옥영은 남장을 했던 것이다.

14 주우는 경전과 역사서를 많이 읽어 모르는 것이 없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15 최척은 왜적들에게 온 집안이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도 모르는 처지에 편안히 아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생사도 모르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최척이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주우는 속세를 버리고 신선이 되기 위해 은거하겠다는 최척을 말리면서 자신과 함께 장사를 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즐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17 최척의 통소 연주 소리를 듣고 칠언 절구를 읊는 옥영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가 시나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소 연주 소리와 칠언 절구는 최척과 옥영을 다시 만나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18 '음산하다'는 '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하다.' 혹은 '분위기 따위가 을씨년스럽고 쓸쓸하다.'의 뜻을 지닌다. ㉠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과 달빛을 받아 빛나는 바다의 경치는 음산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피하기 | ① 일본 배에서 들리는 염불하는 소리는 슬프고 한탄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②, ③ 그림자도 끊어지고 뱃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바다의 풍경은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염불 소리를 듣고 통소를 연주하는 최척의 모습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애잔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19 최척은 염불 소리를 듣고 문득 통소를 꺼내 계면조 한 곡을 연주하며 가슴에 쌓인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기운을 풀어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소로 연주한 계면조 한 곡은 최척의 심리가 반영된 소재이다.

20 일본 배 쪽에서 들린 시는 최척의 아내가 지은 것으로, 최척은 자신과 아내 외에는 이 시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옥영이 일본 배 안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1 날이 밝으면 일본 배 쪽으로 건너가 아내를 찾아보자는 학천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동감하자 최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뱃전에 앉아 날이 밝기를 꼬박 기다렸다.

| 오답 피하기 | ① 두홍은 성격이 급하고 융감한 인물로, 최척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가서 얼른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최척을 돕기 위해서이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② 최척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괴이한 일로 여겼으며, 특히 두홍은 직접 가서 최척의 아내(옥영)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뱃사람들이 최척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학천은 밤중에 소란을 피우다 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다음 날 아침에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이는 최척의 아내를 찾는 일에 불만을 가져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침착한 학천의 성격 때문이다.

⑤ 통소 소리를 들은 옥영은 남편일까 하는 기대에 시를 읊고, 이를 계기로 결국 남편과 재회한다. 남편을 다시 만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아 옥영이 시를 읊은 것을 후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밤중에 소란을 피우다 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학천이 매우 신중하고 침착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23 주위 사람들은 최척의 애절한 사연을 전해 들었으므로 ㉠을 보고 감동과 기쁨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24 이 작품은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6·25 전쟁으로 인해 헤어졌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삼촌이 이 소설을 읽고 가장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25 4년 동안 보살펴 주고 아끼던 옥영(사간)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전별금까지 주어 남편에게 보내 주는 모습을 통해 돈우가 정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26 돈우는 그동안 옥영을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는데, 학천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섭섭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27 돈우가 말하는 '이 사람'은 4년간 성심성의껏 돌보았던 '옥영(사간)'이고, 옥영의 남편은 '최척'이다.



족집게 예상

126~127쪽

1 ② 2 ④ 3 ④ 4 당시 사회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당시의 사회에서는 불교의 영향력이 컸다.) 5 ④ 6 ② 7 최척과 옥영을 만나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인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당시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힘들게 생활했던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2 ㉠을 보면 돈우는 영리한 옥영이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지만, 옥영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고 하였다.

3 전쟁 때문에 가족 이산의 아픔을 겪는 최척 일가의 모습과 이들의 가족애를 통해 작가가 당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 이 소설을 창작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전쟁으로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최척의 모습을 통해 가족 이산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전쟁으로 죽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③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전쟁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을 수 있다.

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최척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4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옥영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앞일을 계시하며 죽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에서 당시 사회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이 소설은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꾸며 낸 고전 소설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은 실존 인물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서 보면 국제 무역에는 민간 상인도 적극 가담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천이나 돈우와 같은 민간 상인들을 글 속에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②, ⑤ 최척과 옥영이 대외 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 국내 상업의 발달과 함께 대외 무역이 활기를 띠었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척 부부가 대외 무역에 참여하면서 안남에서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 소설은 조선에서 중국, 안남까지 공간적 배경이 확장되는데, 이는 대외 무역이 활발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옥영이 남장을 한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좋아해서 남장을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밤중에 소란을 피우다 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다음날 아침에 옥영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모습에서 학천이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최척과 의형제를 맺고,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아 여유문이 최척을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라는 여유문의 제안을 거절하는 최척의 모습을 통해 최척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고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옥영을 데려가기 위해 학천이 내어 놓은 백금 세 덩어리를 받을 수 없다는 모습에서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에 대한 정을 중시하고 배려심이 깊은 돈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7 ㉤에서 옥영은 배 안에서 들리는 통소 소리가 평소 애 애히 들던 노래와 똑같아서 혹시 남편이 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지은 시를 읊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옥영이 읊은 시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으므로, 시는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돕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28쪽

1 ㉤ 2 ㄴ 3 ㉠ : 최척이 자기 신세를 생각하며 가슴에 쌓인 슬픔과 원망을 풀어내는 소리이다. / ㉡ : 옥영이 배 안에 남편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낸 소리이다.

1 ㉤에서 옥영은 어젯밤 통소 소리를 듣고 최척이 그 배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기대하여, 시험 삼아 자기가 지은 시를 읊어 보았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옥영이 최척과 만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1597년 8월에 남원이 왜적에게 함락되었다.'라고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유재란의 실제 배경으로, 이를 통해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② 최숙과 심씨 부인은 피란을 다니던 중 우연히 몽석의 울음소리를 듣고 몽석과 재회하였다. 여기에는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 잘 드러난다.

③ 옥영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예언하는 장면을 통해 이야기에 불교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소설이 창작된 당시의 조선 사회는 외국을 상대로 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배경이 안남까지 확장된 것은 대외 무역이 활발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ㄴ은 서경덕의 시조로, 임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에서 옥영은 통소 소리를 듣고 남편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임이 온 것이 아닐까 착각하는 ㄴ의 화자와 그 심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황진이 시조로,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ㄷ.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춘사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ㄹ. 황희의 시조로, 늦가을 농촌의 풍요롭고 흥겨운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3 최척이 일본 배에서 들리는 엽불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통소를 불자, 일본 배에서 엽불 소리가 그치고 조선 말로 칠언 절구 읊는 소리가 들린다. 즉, '엽불 소리 → 통소 소리 → 칠언 절구 읊는 소리'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이 중 통소 소리는 최척이 자신의 심정을 풀어내기 위해, 칠언 절구 읊는 소리는 옥영이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낸 소리이다.



03. 청포도

제재 확인 문제

129쪽

1 ② 2 청포도 3 ㉠ : 푸른색 ㉡ : 흰색 4 (1) × (2) ○

- 1 '청포도'는 고향과 청포도를 제재로 하여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이 작품이 1939년 일제 강점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의 주제는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고향을 떠난 화자에게 '청포도'로 기억되는 고향의 모습은 풍요롭고 평화롭다. 이처럼 이 시에서 '청포도'는 희망이 넘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한다.
- 3 '청포도'는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4 (1) '내가 바라는 손님'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역사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본문 확인 문제

131쪽

1 ③ 2 ⑤ 3 아이야 4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 5 ②
6 ④ 7 ⑤ 8 일제의 수탈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우리 민족

- 1 4연에서 화자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청포'를 입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화자는 평화로운 세계 즉, 조국 광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파하기 | ① 이 시는 청포도가 풍성하게 열린 모습,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 등의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시는 각 연을 모두 2행으로 균일하게 배열하여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이 시는 희망,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는 '청포도', 동경, 이상을 상징하는 '하늘'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와 같은 푸른색 이미지의 시어와 '흰 돛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과 같은 흰색 이미지의 시어의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2 4연에서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하였다. 청포는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입던 푸른색의 도포이다. 따라서 양복을 입은 사내가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우리의 전통 시가에서는 10구체 향가의 9~10행이나 시조의 종장과 같이 시상을 마무리하는 구절을 대개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이 시에서는 '아이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 4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은 모두 흰색의 이미지를 통해 순결함과 깨끗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손님(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여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은 '손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5 ㉠은 푸른색 이미지의 시어로 희망, 동경을 의미하고, ㉡는 흰색 이미지의 시어로 순수, 정성을 의미한다.
- 6 화자는 5연에서 '손님'을 맞아 포도를 따 먹으면 자신의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손님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7 '내가 바라는 손님'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8 「보기」를 통해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⑥는 '일제의 수탈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우리 민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132쪽

1 ④ 2 ② 3 우리나라 4 ②

- 1 화자는 간절히 바라는 '그날'이 오면 종로에 있는 종을 '까마귀'처럼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게 해 기쁨을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까마귀'는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희생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어이다.
| 오답 파하기 | ① '그날'이 오면 더듬실 춤이라도 추고 광복의 기쁨에 자신의 머리로 인경을 들이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그날'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밤하늘'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두개골이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광복을 기쁘게 맞이하겠다고 하였다.
⑤ 이 시는 반복과 과장을 통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강조하고 있다.
- 2 ①은 화자가 자신의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울림으로써 광복의 기쁨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로, 자기희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② 역시 광복이 된다면 자신의 몸 가족을 벗겨서라도 그 기쁨을 만끽하겠다는 자기희생의 정서가 드러난다.
- 3 '삼각산'은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며, 북한산은 한양(지금의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산이다. '한강' 역시 한양의 중심을 따라 흐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이다. 따라서 ㉠과 ㉡는



작가는 ‘한양’을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이처럼 어떤 대상의 대표적인 예나 일부분을 들어 전체를 비유하는 방법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 4 이육사의 ‘청포도’와 심훈의 ‘그날이 오면’은 모두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시로써 시의 주제 의식을 이육사는 비유적, 상징적으로, 심훈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조국의 광복’을 ‘청포도’에서는 ‘내가 바라는 손님’으로, ‘그날이 오면’에서는 ‘그날’로 각각 표현하였다.

죽집게 예상 133쪽

1 ⑤ 2 ㉠과 ㉡의 화자 모두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3 ③ 4 ⑤

- 1 ㉠과 ㉡는 모두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ㄷ). ㉠과 ㉡의 화자는 모두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알리고자 한다(ㄷ).

▶ 오답 피하기 ㄱ. 화자의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에 해당한다.

ㄴ.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2 ㉠과 ㉡의 시인은 각각 이육사와 심훈인데,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과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를 주로 노래하였다. ㉠과 ㉡는 광복을 염원하는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

- 3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손님’은 통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이’를 상처받은 우리 민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연의 ‘아이야’는 옛 전통 시가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던 뜻 없는 시구로, 가상의 시적 청자를 의미한다. ㉠에서는 ‘고달픈 몸’이 분단으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은 1939년 일제 강점기에 발표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바라는 ‘손님’은 조국 광복을 의미한다.

②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중학생인 독자의 상황을 대입하여 이 시를 감상한다면, ㉠의 ‘손님’은 화자가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화자의 꿈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청포도’는 남과 북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시를 감상하는 독자의 처지나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어나 시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의 주제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 4 ‘기뻐서 죽사오매’는 광복에 대한 기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반어법은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34쪽

1 ③ 2 ② 3 ⑤ 4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광복을 상징하는 ‘손님’이 오는 것이 쉽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1 화자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익어 갔던 과거의 평화로웠던 고향에 대해서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과거의 고향품을 잊고자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① ㉠ 보기 ㉠에 제시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고국을 그리는 간절함을 노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④, ⑤ 화자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는 믿음 속에서 이 시가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가 바라는 ‘손님’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데, 화자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이얀 모시 수건’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하고 경건한 자세로 ‘손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이 시는 풍요롭게 많이 매달린 모양을 음성 상징어인 ‘주저리 주저리’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와 같은 푸른색 시어를 통해서 희망과 동경의 의미를, ‘흰 돛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과 같은 흰색의 시어를 통해서 순수와 정성의 의미를 나타내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3 이 시에서 흰색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는 ‘흰 돛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이며, 이는 순수와 정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 보기 ㉠에서 검정색 이미지를 지닌 시어는 ‘밤하늘’과 ‘까마귀’이다. 이 중 ‘밤하늘’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상징하지만, ‘까마귀’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소리를 울리는 자기희생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① ‘~울리오리다’와 같은 의지적 표현을 통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 보기 ㉠과 달리 이 시는 ‘내가 바라는 손님’과 같은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었다.

②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에서는 반복법을,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에서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다.

③ ㉠ 보기 ㉠의 ‘그날’은 이 시의 ‘내가 바라는 손님’이 찾아오는 날로 볼 수 있으며,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광복의 날을 의미한다.

④ 이 시의 화자는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에서, ㉠ 보기 ㉠의 화자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에서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품 탐구

그날이 오면 _ 심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저항시	성격	저항적, 의지적
제재	조국 광복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특징	• 반복과 과장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 격정적인 감정을 극한적 시어를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함		



- 4 이 시는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며 쓴 작품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광복을 상징하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온다는 것은 광복이 오는 것이 쉽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고달픈 몸’은 일제의 수탈로 고난을 겪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04. 노새 두 마리

제재 확인 문제

135~136쪽

1 노새 2 ② 3 노새로 연탄을 배달하였다. 4 (1) × (2) ○
5 ② 6 말, 노새를 부려 일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것으로 취급받는 상황 7 ① 8 (1) × (2) ○

- 1 ‘나’는 노새를 찾기 위해 들어간 동물원에서 얼룩말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노새와 꼭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2 ‘나’의 아버지는 노새를 부려 연탄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늘 연탄 마차 뒤를 따라다닌다. 이는 아버지를 돕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다.
- 3 아버지는 도시화·산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새로 연탄을 배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로,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 4 (1)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볼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노새를 흥미롭게 여기며, 큰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다.
- 5 ‘노새 두 마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마차, 연탄, 문화 주택, 슬래브 집, 판잣집, 공동변소, 통행금지, 삼륜차’와 같은 소재를 통해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골목’을 통해서만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 6 1970년대에 ‘노새’나 ‘말’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것은 삼륜차에 밀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취급을 받았다.
- 7 새 동네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였고, 새 동네 아이들 역시 놀이를 할 때 구동네 아이들을 끼워주지 않는 등 구동네와 새 동네는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 작가는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8 (1) ‘노새’는 산업화·도시화 정책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받는 존재를 의미한다.

본문 확인 문제



137쪽	1 ① 2 골목 3 ②
138쪽	4 ① 5 ④ 6 구동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다.
139쪽	7 ③ 8 살아온 생활 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9 ⑤ 10 ①
140쪽	11 ③ 12 ③ 13 ① 14 ⑤
141쪽	15 ⑤ 16 ③ 17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18 ③
142쪽	19 ⑤ 20 ③ 21 ⑤
143쪽	22 ② 23 ③ 24 ㉠ : ‘나’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 : 노새가 도망친 일(노새가 달아난 일)
144쪽	25 ⑤ 26 ③ 27 말이나 노새를 부려 일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것으로 취급받는 상황이다.
145쪽	28 ④ 29 ③ 30 ①
146쪽	31 ③ 32 ② 33 ②
147쪽	34 ⑤ 35 통행금지 36 ③
148쪽	37 ④ 38 꿈속 39 ①
149쪽	40 변화가, 한길, 한강 다리 41 ⑤ 42 검은 물
150쪽	43 길 잃은 나그네 44 ② 45 ⑤ 46 ⑤
151쪽	47 얼룩말 48 ⑤ 49 ④
152쪽	50 ① 51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52 ②
153쪽	53 ⑤ 54 또 한 마리의 노새 55 ③ 56 ①

- 1 이 글의 서술자는 어린아이인 ‘나’이다. ‘나’는 작품 속에서 아버지의 힘들고 고된 삶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서울의 변두리임을 알 수 있다.
③ 아버지가 노새와 함께 연탄 배달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 것으로 볼 때 이 글이 노새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문화 주택’, ‘슬래브 집’, ‘판잣집’ 등의 소재를 통해 이 글이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삶이 드러난다.
- 2 골목은 구동네와 새 동네를 구분 짓는 공간으로, 두 동네 간의 소통의 단절을 상징한다.
- 3 ㉠에서 2, 3년 전부터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 주택이 들어섰다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③ 문화 주택이 들어서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구멍가게가 없어지거나 연탄 배달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④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지는 알 수 없다.
⑤ 면발치에서 보면 슬래브 집들에 가려 판잣집이 보이지 않을 뿐 판잣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 4 새 동네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구멍가게에 두 홉짜리 소주병만 쌓여 있었는데,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이 섞였다고 하였다. 구멍가게에 새로운 소주가 진열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②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었다고 하였다.

③ 갖가지 신문 배달부가 아침저녁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고 하였다.

④ 슈사인 보이(구두닦이 소년)가 새벽마다 “구두 닦으…….”를 외치고 다녔다고 하였다.

⑤ 이전에는 큰 길가에만 차를 대 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년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대고대고 쓰레기를 퍼 갔다고 하였다.

- 5 아버지는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먼 동네까지 배달을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동네가 바뀐 것을 좋아하였다.

- 6 두서너 장, 많아야 2, 30장씩만 연탄을 사고, 사과가 말라비틀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사과를 사러 오지 않는 것을 통해 구동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7 ㉠에는 노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신기해하는 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만져보려고 하거나 다정한 눈길로 바라볼 뿐, 미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새 동네의 아주머니들은 노새를 귀엽게 여기며, 오랜만에 보는 노새를 신기해했다.

②, ④ 구동네 아낙들은 골목에서 오줌을 찹 갈기는 노새를 향해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라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 이를 본 ‘나’는 이들을 향해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라고 표현하며 구동네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을 내비친다.

⑤ 새 동네가 들어오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걸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다.

- 8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가 마차를 끌고 연탄을 배달하는 것을 자주 봐 왔기 때문에 노새가 신기하지 않지만, 평소 노새를 쉽게 보지 못했던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 즉, 노새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두 동네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9 새 동네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구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었다.

- 10 ㉠은 노새를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는 노새를 신기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11 ㉠에서 구동네 아이들은 새 동네의 골목이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 놀기에 좋았기 때문에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고 하였다.

- 12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시각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에서는 노새를 신기해하는 새 동네 아이들의 반응에 자부심을 느끼는 아버지의 행동을 ‘나’의 시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 13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에 관심을 보이고 좋아해 줄 때면 ‘나’와 아버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버지는 새 동네 아이들이 귀여워하는 노새를 자신이 몰고 간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과 같이 행동한 것이다.

- 14 새 동네 아이들은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밖에 나오는 날에도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구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새 동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 15 말과 노새를 바꾸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던 가족들은 약하게 보이는 노새를 보고 난 후 무거운 연탄 짐을 나를 수 있겠느냐며 빈정댔다.

| 오답 피하기 | ①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동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나’의 집안 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작은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를 통해 작은형은 노새를 돌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를 통해 원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말을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자신의 집에 온 뒤부터 털 색깔이 회색빛에서 검정빛으로 변해 가는 노새가 가었다고 하였다.

- 16 말을 부리던 아버지는 처음에 노새와 말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지만, 눈이 자주 짓무르고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말의 잔병치레가 잦아 노새와 말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 17 ㉠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펼쳐질 핵심 사건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에서는 노새가 도망친 일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사건이 전개된다.

- 18 ㉠은 우리 집에 와 연탄 배달을 하면서 바뀐 노새의 외양 묘사로,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의 상황을 드러낸다.

- 19 ㉠, ㉡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위기’에 해당한다. ㉠에서 연탄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아버지가 넘어지고, 노새가 도망치는 장면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오답 피하기 | ①은 발단, ②는 절정, ③은 결말, ④는 전개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 ㉠에서 공장 사람들은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배달할 집을 척척 찾아내는 아버지를 두고, “마차 영감은 집 찾는 데 귀신이 니깐.”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공장 사람들이 아버지의 길 찾는 재주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이다. ‘나’가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아버지를 도우려 나서는 모습을 통해 ‘나’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에 드러난 아버지의 성격 및 특징은 길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눈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 속는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④ 연탄 공장 배달 주임은 아버지에게 연탄 배달 업무를 할당할 뿐, 아버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지는 않는다.

⑤ 거리의 사람들은 미끄러지려는 연탄 마차를 보고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

21 무거운 연탄을 400장이나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살얼음’까지 깔려 있다는 것은 노새와 아버지의 고난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얼음’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2 ㉠은 자신의 옷을 망칠까 봐 노새가 도망간 상황을 모른 척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모른 척 외면하는 인정이 메마른 도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③, ④ ㉠에서 자연 파괴나 세대 간 소통의 단절,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인물이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 주택이 들어서면서 먼 동네까지 배달을 가지 않아도 되어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23 연탄 마차가 자주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노새가 힘을 더 쓰지 못하면 연탄 마차가 고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노새에게 매질을 한 것이다.

24 ㉠은 마차를 따라 뒷걸음질 치다가 나자빠진 아버지와 달리 ‘나’는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은 마차에서 풀려난 노새가 달아난 일을 뜻한다.

25 달아나는 노새 때문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은 기겁을 해서 길옆으로 비켜섰다고 하였다.

26 ‘나’는 노새를 놓친 후 실망과 낭패로 가득 찬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 역시 이를 보고 불현듯 슬픔이 복받쳤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아버지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노새가 도망쳤다는 사실과 노새를 놓친 후 낭패감에 휩싸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②, ④, ⑤ 도망치는 노새를 잡지 못하고 큰길에서 주저앉아 버린 아버지를 본 후, ‘나’는 슬픔이 복받쳐 눈이 썸벅거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안쓰러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27 이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달려가는 노새를 보며, 말 마차를 부리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8 ‘나’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새가 간 곳을 알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것보다 따로 다니면서 노새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찾아보려고 제안한 것이다.

29 ㉠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도시의 변화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인간 소외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② 물질 만능주의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컫는 말로 ㉠과는 관련이 없다.

④ 도시의 변화한 분위기가 드러나 있기는 하나, 그것이 무질서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⑤ 도시 문명이 발달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는 하나,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30 노새를 찾아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는 ‘나’에게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나’는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31 ‘까마귀 새끼’는 친구들이 연탄 가루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아버지의 아들인 ‘나’에게 붙인 별명이다.

32 마구간에서 노새 소리가 들리면 웬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아버지와 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반기는 것으로 보아 ‘나’가 노새에게 가족과 같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 ‘어떤 신사 아저씨’와 ‘어떤 아주머니’는 어두워진 거리에서 정신없이 무언가 찾아다니는 어린아이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34 시골에서 올라와 힘겹게 노동을 하는 아버지에게는 삼륜차를 몰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35 ‘통행금지’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반인이 거리를 지나다니거나 집 밖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던 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소재이다.

36 ㉡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앞서 일어났던 사건의 자초지종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귀뜸을 통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앞의 내용을 되짚어 볼 때, ‘나’는 마차가 구를 때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37 ㉠은 노새가 큰길을 질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나’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도망가는 노새를 바라볼 뿐, 노새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

② ㉠은 ‘나’의 꿈속 장면인데, ‘나’가 큰길로 달려가는 노새를 보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는 길을 질주하는 노새의 모습만 드러날 뿐, 이에 대한 ‘나’의 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 보고 싶었을 거야.”를 통해 노새가 주인에게 돌아가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현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하루 종일 노새를 찾느라 거리를 헤맸던 ‘나’는 밤이 되자 앞뒤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고, 꿈속에서 도망가는 노새를 보았다.

39 ㉠은 도망친 노새가 이동한 첫 번째 장소로 노새가 자유롭게 내달리는 경로에 해당하지만, ㉡, ㉢, ㉣, ㉤은 현실에서 노새를 괴롭히던 것들을 의미한다.

40 ‘나’의 꿈속에서 노새는 ‘큰길 → 변화가 → 큰 시장 → 한길 → 한강 다리 → 고속 도로’를 차례로 확보하며 이동한다.

41 ㉡에서 달랑달랑하는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노새를 쳐다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목에 달린 방울 소리 때문에 공포를 느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노새의 난동 때문에 곱게 쓴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고 하였다.

② ㉢에서 콩나물 통이 었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사과알이 구르는 모습 등은 노새 때문에 엉망이 된 시장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③ ㉣에서 노새를 피해 길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던 여학생이 그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토막 쓰러지듯 넘어졌다고 하였다.

④ ㉤에서 노새가 시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경비원 세 명이 노새를 잡기 위해 앞뒤를 막았으나 붙들지 못했다고 하였고, ㉥에서 노새의 난동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한길에서 노새를 잡기 위해 지키고 서 있었다고 하였다.

42 ‘검은 물’은 연탄 배달을 하면서 노새의 털에 묻었던 연탄 가루가 땀에 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단했던 노새의 삶을 상징한다.

43 ‘길 잃은 나그네’는 노새를 찾기 위해 늦은 밤까지 거리를 헤매지만, 어디로 가야 노새를 찾을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나’의 처지를 비유한 말이다.

44 ‘나’는 그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으나,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45 ‘나’는 노새가 시키면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돌아오지 못할 보급자리를 찾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보아 ㉠은 고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자유의 공간을 의미한다.

46 ‘나’는 노새가 꿈속에서처럼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다.

47 ‘나’는 우연히 들어간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고 노새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얼룩말과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48 ‘나’가 무료 공개하는 날 딱 한 번 동물원에 와 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동물원 입장료를 사지 못할 만큼 ‘나’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49 아버지가 노새와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 왔으므로 ‘나’는 자연스레 아버지의 얼굴에서 노새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단지 아버지가 얼룩말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얼룩말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와 오랫동안 일을 해 왔으므로, 자연스레 아버지의 얼굴에서 노새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② 아버지는 얼룩말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을 뿐, 얼룩말을 흉내 내지 않았다.

③ 아버지는 이렇다 할 감정 표현 없이 멍하니 얼룩말 앞에 서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가 얼룩말의 울음소리를 내며 흐느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아버지가 평소 얼룩말(노새)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가 말과 아버지가 닮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50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새를 잃어버리고 깊은 좌절감을 느낀 아버지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현실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

51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는 말은 도망친 노새 대신 자신이 노새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52 ㉠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노새가 되어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노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자 ㉡과 같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은 노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닥치는 불행에 대한 아버지의 좌절이 담긴 행동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버지는 잃어버린 노새 대신 가족을 위해 스스로 노새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 같이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

③ 노새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잃어버린 노새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친 상황을 통해 아버지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노새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⑤ ㉢에서 아버지는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밖으로 걸어나간다. 이는 희망을 잃고 좌절한 아버지의 심정이 반영된 행동이다.

53 이 글의 결말에서 아버지는 컴컴한 골목길로 사라지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산업화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의 힘겨운 삶을 보여 주고 있다.



- 54 '우리 같은 노새'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하층민을 비유한 표현이고, '또 한 마리의 노새'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 55 ㉠은 칠수 어머니가 급변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며 한 말이다.
- 56 ㉡는 도시화·산업화된 사회에서 정착할 수 없는 소외되고 뒤떨어진 존재를 의미하고, ㉢~㉤는 구시대적인 노새와 대비되는 교통수단으로 도시화·산업화의 산물이다.

죽집게 예상 154~155쪽

1 ㉢ 2 ㉣ 3 ㉤ 4 새 동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구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5 ㉥ 6 ㉦ 7 ㉧ 8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인정이 메마른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1 이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에서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2 1970년대에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문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도시 하층민들은 판잣집에 살 수밖에 없었다. ㉡에는 도시화·산업화로 문화 주택이 들어서고, 빈부 격차가 심화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에 '나'와 아버지가 갈등을 겪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새 동네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긴 동네로, 새 동네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는 도시 재개발로 이웃 간의 정이 상실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구동네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 들어선 새 동네에 살았으므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도시화·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3 새 동네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들어선 동네이지만, 노새는 도시화·산업화 때문에 사라지는 운송 수단이므로 새 동네가 아닌 구동네에 어울리는 존재이다.
- 4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은 새 동네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구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 5 '또 한 마리의 노새'는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아버지를 의미하며, '나'는 이러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 6 ㉡의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를 통해 스스로 노새가 되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ㄴ). 또한 아버지를 '또 한 마리의 노새'로 비유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ㄷ).
- | 오답 피하기 |** ㄱ. 아버지가 노새를 부리는 것은 옛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를 굴릴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 ㄷ.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갈 뿐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사회의 탓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7 칠수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새'는 도시화·산업화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반면,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택시'는 '노새'와 대비되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 8 ㉠에서 '나'는 자신의 가족의 불행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56쪽

1 ㉤ 2 ㉥ 3 '노새 두 마리'는 노새와 아버지를 가리킨다. 두 대상은 모두 도시화·산업화된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를 의미한다.

1 ㉡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 노새의 탈출로 소시민인 아버지의 일과 책임감이 가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노새의 탈출로 아버지의 삶이 더 고달파질 것이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은 노새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 스스로 노새가 되어 연탄 배달을 하면서 힘든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몹시도 가팔랐다.’는 것은 아버지가 노새와 연탄 배달을 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② ㉡은 새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처음 보았다는 이야기로,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노새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새가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검은 물은 연탄 배달 일을 했던 흔적이므로, 노새의 고되고 힘든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에서 ‘나’는 노새가 고속 도로를 따라 멀리멀리 달아나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간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여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란 노새에게 있어 자유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속 도로와 톨게이트는 노새가 자유로운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3**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는 노새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연탄을 배달하는 아버지는 그 삶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던 당시 사회에서 노새는 삼륜차에 밀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고 있고, 아버지 역시 그러한 노새를 부려 일한다는 점에서 두 대상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라는 유사성을 지닌다.

대단원 평가

157~162쪽

1 ⑤ **2** ③ **3** ④ **4** ④ **5** 당시는 노인(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던 사회였다. **6** ① **7**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중국, 안남까지 확장된 것은 대외 무역이 활발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8** ④ **9** ③ **10** ④ **11** (1) 두 손을 뻗백 적셔도 좋으려. (2) 까마귀 **12** ② **13** ④ **14** ⑤ **15** ④ **16** 설상가상 **17** ⑤ **18** ④ **19** ⑤ **20** ㉠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21** ④ **22** ③ **23**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택시), 자전거 **24** ⑤

- 1** ㉡, ㉣은 조선 후기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던 정철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한 시조 ‘훈민가’이다. 이 시조는 유교의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 2** ㉡의 화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미로 논을 매고, 자신의 논을 다 매고 난 후 이웃의 논을 매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가 근면함과 성실함,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강조했던 농업 중심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덕목들은 모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사회가 유교적 관념과 도덕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의 종장인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를 통해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농부가 논을 매고 돌아오는 길에 뽕나무 잎을 따는 모습이나, 뽕나무 잎을 누에에게 먹이는 모습이다. 또한 ㉣은 근면함과 성실함,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시조이므로 작품의 주제 의식을 고려할 때 그들에 앉아 쉬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의 종장에 ‘무거울까’는 무겁지 않다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드러낸 설의적 표현이다. 따라서 ㉣의 경우는 “저는 젊기 때문에 돌을 들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정도로 각색하는 것이 좋다.

- 5** ㉣의 화자가 노인의 짐을 들어 주려고 하는 상황이나 ㉠보기의 화자가 어른을 공경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윤리를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는 노인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 6** 이 소설은 주인공인 최척과 그의 가족들이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을 겪으며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전쟁 때문에 겪는 가족 이산의 고통을 사랑으로 극복해 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7** 이 소설이 창작된 당시의 조선은 외국을 상대로 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 안남까지 확장된 것은 대외 무역이 활발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8** ㉢에서 최척이 주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는 것은 당시 해외 무역이 활발했던 사회상을 드러낸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옥영이 남장을 한 이유는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여자인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알아보이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에서 춘생은 엮여지더니 다시 깨어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춘생의 죽음을 의미한다.

③ 최척이 여유문의 결혼 제의를 거절한 것은 아직 생사를 모르지만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아내에 대한 최척의 사랑을 알 수 있다.

⑤ ㉣의 상황을 살펴보면 옥영은 통소 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이 배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를 읊게 된 것이고, 옥영의 시를 듣고 최척은 시를 읊은 사람인 아내 옥영을 찾게 된다. 따라서 시는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 준 매개체 역할을 한다.

- 9**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 화자는 ‘내가 바라는 손님’을 ㉣의 화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② ㉡와 ㉣은 모두 일제 감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 화자는 희망과 동경, 순수와 정성을 상징하는 시어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의 화자는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와 같이 자신의 심정을 격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은 일제 강점기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조국의 광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신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병자호란’으로 가정한다면 이 시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평화로운 세계를 기원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11 ㉠의 화자는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의 화자는 ‘그날’이 오면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릴 것이라고 하며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 ㉢은 깨끗하고 순수한 기다림의 모습을 흰색의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알알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청포도의 풍성함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은 ‘그날이 오면’을 반복하여 조국 광복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징 등을 들어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 ‘삼각산’은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가리킨 시어이다.

⑤ 두개골이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겠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3 이 소설은 ‘노새’를 통해 주인공인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아버지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노새를 부리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고 하나, 계속되는 불행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린 소설이다.

②,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눈으로 하층민인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⑤ 이 소설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있다.

14 ㉠에서는 도망친 노새를 찾기 위해 눈 내리는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나’와 아버지에게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도시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인정이 메마르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소통이 단절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5 ‘길 잃은 나그네’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하층민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 ㉡에는 노새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도망친 노새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닥친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는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문학 작품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경험을 반영하여 창작되므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며 읽으면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18 ㉢에서 청포도가 풍요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은 과거의 평화롭던 고향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생활이 편리한 현대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은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호미를 메고 논을 매는 모습, 뽕을 따다가 누에에게 먹이는 모습은 농업 중심의 사회를 나타낸다.

② 일찍 일어나 일하러 나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③ 길가에 시체가 쌓여 있는 모습은 전쟁 때문에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위태로운 삶을 반영한다.

⑤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라는 칠수 어머니의 말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노새를 부리는 일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 ㉣의 화자는 고달픈 현실에서도 광복이라는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의 화자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건디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20 ‘노새’와 ‘아버지’는 모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상징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두 대상의 유사성을 통해 제목을 ‘노새 두 마리’라고 붙인 것이다. 따라서 ㉣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삶이 평탄하지 않은 ‘나’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1 ㉤에서 아버지가 말과 노새를 부려 일을 한 것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를 장만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2 도시화·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삼륜차는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을 몰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아버지는 줄어드는 일감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숨기고,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며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23 ‘노새’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 갈 구시대적인 산물이지만,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택시), 자전거’는 모두 노새와 대비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24 ㉥ ‘오르막길’은 노새가 끄는 마차에게 힘겨움을 주는 상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은 왜적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이, ㉤은 왜적에게 잡혀간 옥영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는 모두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에 의한 피해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③, ④ ㉢과 ㉤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소재이다.



6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개념 잡기 문제

164~165쪽

1 ① 2 객체 높임법 3 ① 4 말하는 5 ⑤ 6 피동 7 부
정문의 중의성 8 ④

- 1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것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 2 문장의 부사어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드렸다’를 사용했으므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 3 ①은 비격식체에 해당하고, ②~⑤는 모두 의례적인 용법으로 쓰여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 4 시간 표현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전후 관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선어말 어미나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제를 나타낸다.
- 5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동사의 어간에 ‘-게 되다’를 붙여 실현하는 것은 피동 표현에 사용되는 문법 요소이다.
- 6 주어가 제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 7 제시된 문장은 ‘친구들 중에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하나의 부정문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한다.
- 8 ‘-지 않다(아니하다)’, ‘-지 못하다’와 같은 용언을 이용한 부정문은 긴 부정문에 속한다.

01.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제재 확인 문제

166~167쪽

1 화자 2 (1) ○ (2) × 3 목적어, 부사어 4 ⑤ 5 ④
6 ④ 7 (1) ○ (2) × (3) ○ 8 ③

- 1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 즉 화자와 다른 대상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2 (2)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방법으로,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한다.
- 3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한다.

- 4 ‘건강하시다’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한 것으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한 어휘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상대 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높이거나 낮추어 사용하는 높임 표현이다.
 - 6 ‘-아요/-어요’와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해요체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 | 오답 피하기 |** ①은 하오체, ②는 해라체, ③은 하십시오체, ⑤는 하계체로 격식체 상대 높임법에 해당한다.
- 7 (2) 과거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시간 표현이다.
 - 8 ㉠은 ‘지금’과 ‘-는-’을 통해 현재 시제를, ㉡은 ‘내일’과 ‘-겠-’을 통해 미래 시제를, ㉢은 ‘어제’와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본문 확인 문제



168쪽

1 ④ 2 (1) 주체 높임법 (2)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으)시-’ 3 ③

169쪽

4 ② 5 종결 어미 6 ④ 7 ①

170쪽

8 ① 9 먹는다 10 ② 11 ④

- 1 높임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서술의 주체(문장의 주어), 화자와 서술의 객체(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2 ㉠에서는 화자보다 손윗사람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쓰였고,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고 있다.
 - 3 ㉢에서 ‘어머니’는 서술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서술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 ‘나’이다.
-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문장의 주어는 모두 ‘나’이다.
② ㉡의 목적어인 ‘동생’은 화자인 ‘나’보다 손아랫사람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 목적어인 ‘어머니’는 화자인 ‘나’보다 손윗사람이므로 높임을 실현하여 표현해야 한다.
④ ㉢에서 서술의 객체는 ‘동생’이므로 화자인 ‘나’보다 손아랫사람에 해당한다.
⑤ ㉢에 사용된 부사격 조사 ‘께’는 조사 ‘에게’의 높임 표현이고, 특수한 어휘 ‘드렸다’는 ‘주다’를 높여 표현하는 서술어이다.
- 4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에는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해’, ‘해요’는 상대 높임법의 비격식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 5 상대 높임법은 ‘-하십시오’, ‘-아라/어라’, ‘-오’, ‘-게’ 등과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 6 ㉠과 ㉡은 모두 의례적인 용법으로 쓰여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종결 어미 ‘-하시오’를 사용한 하십시오체의 문장이고, ㉡은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한 해라체체의 문장이다. 하십시오체와 해라체체는 모두 격식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②, ③, ⑤ ㉢는 청자가 동료인 경우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높여 표현하고 있다. ㉡은 청자가 화자보다 손아랫사람인 경우로 해라체를 사용하여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두 문장에서 화자는 동일하지만, 청자는 각각 동료와 손아랫사람으로 화자와의 관계가 다르다.

7 ①은 해요체에 속하는 높임 표현으로 비격식체이다.

| 오답 피하기 | ②는 하십시오체, ③은 하계체, ④는 해라체, ⑤는 하오체로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에 해당한다.

8 시제는 ‘-았-/었-/였-’, ‘-겠-’, ‘-는-/ㄴ-’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또한 ‘어제’, ‘지금’, ‘내일’, ‘모레’ 등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9 현재 시제에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는 ‘-는-/ㄴ-’이다.

10 ㉠은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 과거 시제이고, ㉡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표현한 미래 시제이다. ㉢은 말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한 현재 시제이다.

11 ④에서 ‘바쁘셨다’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점보다 이전의 아버지에게 대해 설명하는 말이므로 ‘모레’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를 써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부사 ‘내일’과 선어말 어미 ‘-겠-’은 모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② 부사 ‘지금’과 선어말 어미 ‘-ㄴ-’은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③ 부사 ‘어제’와 선어말 어미 ‘-았-’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⑤ 부사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이고, ‘반장이다’ 역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171~172쪽

1 ④ **2**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3** ④ **4** ④ **5** ⑤
6 (1)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내일’과 과거 시제가 함께 쓰였기 때문이다. (2) 내일 꼭 가겠습니다. / 내일 꼭 갈게요. **7** ④
8 ④ **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의미의 시간 표현이고, ㉡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1 ㄴ은 서술의 객체인 부사어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ㄱ은 주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으로,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③, ⑤ ㄴ은 객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으로, 서술의 객체인 ‘어머니’를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한 여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2 ‘앉아’는 상대 높임법의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한 것으로, 청자가 화자보다 손아랫사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앉아’를 제시된 ㉠조건에 맞는 높임 표현으로 고치려면 ‘하십시오체’를 표현하는 종결 어미 ‘-하시오’를 붙여 ‘앉으십시오’로 써야 한다. ‘앉으세요’는 비격식체 높임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제시된 문장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내일’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다.

4 ㉠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의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5 서술의 주체이자 청자인 ‘어머니’는 화자보다 손윗사람이므로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을 통해 높여 표현해야 한다. 주격 조사 ‘가’는 ‘께서’로, 서술어 ‘만들었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넣은 후, 종결 어미를 해요체로 바꿔야 한다.

6 ㉠은 말하는 시점보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표현한 문장이므로 미래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7 청자, 주체, 객체가 모두 화자보다 손윗사람이므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모두 실현해야 한다. 또한 시제는 과거로 표현해야 한다.

8 ㉢ ‘있으십니다’의 주체는 수영복인데, 수영복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있으십니다’는 ‘있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9 ④에서 서술어 ‘좋아하는지’의 주체는 손님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좋아하시는지’로 표현해야 한다.

10 ㄱ은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직접 높였으나, ㄴ은 주어인 ‘선생님’의 신체의 일부분인 ‘손’을 통해서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ㄱ과 ㄴ은 모두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③ ㄱ과 ㄴ은 모두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였다.

④, ⑤ ㄴ에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손’ 역시 선생님의 신체 일부분이므로 간접적으로 높여 ‘크시다’로 표현하였다.

11 비공식적 상황일지라도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무조건 상대방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친근감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화자보다 손윗사람일 경우에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높여 표현해야 한다.

12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 의지, 예정의 의미로 쓰인다. ①의 ‘-겠-’은 주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②, ③, ④, ⑤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3 ‘-더-’나 ‘-았-/었-’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나, ‘-더-’는 과거를 회상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죽집게 예상

173~174쪽

1 ③ 2 나는 아버지께 편지를 전해 드렸다. 3 ⑤ 4 ③
5 ④ 6 ④ 7 ① 8 서술어의 주체인 '운동화'는 높임의 대상
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
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있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9 ④ 10
② 11 ③ 12 현재 시제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부사어 '오늘'
과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1 조사 '께서'는 문장의 주어, 즉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손윗
사람일 경우에 사용하는 주격 조사이다.
- 2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가 화자보다 손윗사람이므로 부사격
조사 '께'를 써야 한다. 또한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주
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써 높임을 나타내야 한다.
- 3 ⑤의 문장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
타내고 있으나, ①~④의 문장은 부사 '어제' 또는 선어말 어
미 '-았-/었-/였-'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4 ①은 문장의 주어,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고, ②은 문장의 목적어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
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①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
시-'를 함께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였다.

② ②은 문장의 목적어인 '어머니'를 고려하여 높임을 표현하였다.

④ ④은 손아랫사람인 화자가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여 표
현한 것이다. ⑤은 손아랫사람인 화자가 서술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여 표현한 것이다.

⑤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여 높임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 높임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①, ②과는 관련이 없다.

- 5 ④의 '앉으세요'는 해요체에 속한다. 하십시오체는 동사의 어
간에 종결 어미 '-ㅂ시오'를 붙인 형태인 '앉으십시오'이다.
- 6 ④는 높임 표현이 없이 현재 시제가 사용된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로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종결 어미 '-ㅂ시오'를 통해 상대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부사격 조사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통해 부사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를 통해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높
이고 있다.

- 7 나이나 지위에 따른 상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친구 사이일
지라도 공식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
지만, ①과 같이 식사를 하는 비공식적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높여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8 청자(상대)는 '손님'으로 점원에게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해야 하나, 서술어의 주체인 '운
동화'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있으십니다'를 '있습니다'

로 수정해야 한다.

- 9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의 선후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눌
수 있다.

②, ⑤ 과거 시제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았-/
-었-/였-'을 붙여 표현하고, 현재 시제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
간에 선어말 어미 '-는-/ -ㄴ-'을 붙여 표현하며, 미래 시제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겠-'을 붙여 표현한다.

③ 시간 표현을 나타낼 때에는 '어제', '지금', '내일', '모레' 등과
같은 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 10 현재 시제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 -ㄴ-'을 붙이고, 미
래 시제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겠-'이나 '-ㄴ 것이-'를 붙
인다.

- 11 ③에서 '내일부터'는 미래 시제이나 '읽었다'는 과거 시제이
므로 시간 표현이 서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읽었다'는 '읽겠
다'로 고쳐야 한다.

- 12 문장의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부사어나 시간을 표현하는 선
어말 어미를 활용할 수 있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오늘'이라
는 부사어와 '스치운다'의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75쪽

1 ③ 2 ⑤ 3 ⑤ 4 (1) ㉠ '-겠-' ㉡ '-ㄴ 것이-' (2) ㉡의
문장에 쓰인 '-겠-'은 ㉣의 '-ㄴ 것이-'보다 내일부터 일기를
쓰겠다는 주체의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 1 상대 높임법은 '-ㅂ시오', '-아라/-어라', '-오', '-게',
'-아요/-어요', '-아/-어', '-지'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는 것은 주
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

- 2 ㉢의 '앉아라'는 상대 높임법 중 해라체에 해당한다. 해라체는
격식체에 해당하는 낮춤 표현이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종결 어미 '-ㅂ시오'를 사용한 하십시오
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은 종결 어미 '-아요'를 사용한 해요체
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② ㉢에서 여성 화자는 먼저 남자 화자를 알아보고, 비격식체인 해
요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③ '저'는 화자가 손윗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
인칭 대명사이고, 종결 어미 '-어요'는 청자를 높이기 위한 종결 어
미이다.

④ ㉣에서 여성 화자가 말한 '부모님'은 화자나 청자보다 손윗사람
에 해당하므로 높여 표현해야 한다.



- 3 ㉔의 ‘스치운다’는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문법 요소 없이 현재 시제가 실현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겠-’과 ‘-ㄴ 것이-’는 모두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 ㉔의 문장에 쓰인 ‘-겠-’은 ㉔의 ‘-ㄴ 것이-’보다 내일부터 일기를 쓰겠다는 주체의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0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제재 확인 문제

176쪽

- 1 주동, 사동 2 (1) 읽히다, 읽게 하다 (2) 돌리다, 돌게 하다
3 잡혔다(잡히었다) 4 ㉔

- 1 주동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을, 사동은 주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 2 사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 요소에는 사동 접미사와 ‘-게 하다’가 있다. ‘읽다’는 사동 접미사 ‘-히-’ 또는 ‘-게 하다’를 붙여 ‘읽히다’, ‘읽게 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돌다’는 사동 접미사 ‘-리-’ 또는 ‘-게 하다’를 붙여 ‘돌리다’, ‘돌게 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3 도둑이 경찰에 의해 잡는 행동을 당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피동 접미사 ‘-히-’를 넣어 ‘잡혔다(잡히었다)’로 써야 한다.
- 4 ‘녹게 했다’는 ‘녹다’의 어간에 ‘-게 하다’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 각각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피동 표현이 되었다.

본문 확인 문제



177쪽

- 1 ㉔ 2 ‘슬프다’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3 ㉔ 4 ㉔

178쪽

- 5 ㉔ 6 (1) 능동 (2) 피동 7 ㉔ 8 ㉔

- 1 사동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 2 ㉔에서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는 사동 접미사를 붙이는 방법과 ‘-게 하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 3 ㉔의 문장은 주어인 ‘동생’이 ‘아버지’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행위를 직접한 것이므로 주동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동사 ‘살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 ② 동사 ‘들다’에 ‘-게 하다’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④ 동사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⑤ 동사 ‘읽다’에 ‘-게 하다’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 4 ①의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사동 표현을 만들 때에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사용한다.
- 5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은 능동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④ ㉔에서 두 가지 예문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더라도 동작이나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능동과 피동으로 문장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표현임을 설명하고 있다.

③, ⑤ ㉔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동 표현을 만들 때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어지다’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1)은 주어인 사람들이 직접 꽃을 꺾은 것이므로 능동이고, (2)는 주어인 꽃이 사람들에게 의해 꺾임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이다.
- 7 ㉔은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㉔은 피동 접미사가 아니라 ‘-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을 표현하였다.
- 8 ㉔에서 ‘풀었다’는 문장의 주어인 ‘그’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의 ‘-히-’, ②의 ‘-기-’, ③의 ‘-어지다’, ⑤의 ‘-게 되다’는 모두 피동 표현에 사용되는 문법 요소이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179~180쪽

- 1 ㉔ 2 ㉔ 3 ㉔ 4 ㉔은 주어인 ‘철수’가 줄을 끊는 행위를 제힘으로 했다는 의미의 능동 표현이고, ㉔은 주어인 ‘줄’이 ‘철수’에 의해 끊기는 동작을 당하게 되었다는 의미의 피동 표현이다. 5 ㉔ 6 빼앗길까 7 ㉔ 8 ㉔ 9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10 ㉔ 11 ㉔

- 1 ㄱ과 ㄴ은 모두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ㄱ은 ‘꽃다’에 접미사 ‘-기-’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었고, ㄴ은 ‘지우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ㄱ과 ㄴ은 모두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⑤ ㄴ의 ‘지워졌다’는 ‘지우-+-어지-+-었-+-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즉, 동사 ‘지우다’의 어간 ‘지우-’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으로, 접미사 ‘-우-’는 사용되지 않았다.



- 2 『보기』의 문장에서 사동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문법 요소는 사동 접미사 ‘-이-’이다. 그러나 ②는 ‘-게 하다’를 붙여 사동 표현을 나타낸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에서 ‘울렸다’의 ‘-리-’, ③에서 ‘남겼다’의 ‘-기-’, ④에서 ‘먹었다’의 ‘-이-’, ⑤에서 ‘늦었다’의 ‘-추-’는 모두 사동 접미사이다.

- 3 ③의 ‘그가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를 주동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사진첩을 보였다.’이다.

- 4 ㉠은 능동 표현, ㉡은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이 ㉡과 같은 문장으로 달라질 경우,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의해서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 5 ㄱ은 동사 ‘났다’에 접미사 ‘-히-’가, ㄴ은 동사 ‘죽다’에 접미사 ‘-이-’가, ㄷ은 동사 ‘남다’에 접미사 ‘-기-’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ㄹ은 동사 ‘흔들다’에 접미사 ‘-리-’가, ㅁ은 동사 ‘뿜다’에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 6 ‘빼앗길까’는 ‘빼앗-(어근) + -기-(접미사) + -ㄴ까(어미)’로 구성된 피동 표현이다. 화자가 ‘사랑했던 첫 마음’을 빼앗기는 행위를 당한다는 의미이므로 접미사 ‘-기-’는 피동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 7 ①, ③, ④, ⑤는 모두 주어가 객체에게 간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미만 담겨 있지만, ②는 ‘수희는 동생에게 두꺼운 옷을 직접 입혀 주었다.’는 의미와 ‘수희는 동생이 스스로 두꺼운 옷을 입게 하였다.’는 의미가 모두 들어 있다.

- 8 ㉠은 명사 ‘부과’에 접미사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과 같이 능동 표현 대신 피동 표현으로 제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대상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경고문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9 ‘실격 처리합니다.’와 같이 능동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격을 처리하는 주체의 행위가 강조된다. 하지만 ‘실격 처리됩니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실격을 받는 대상인 수험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 10 ④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하면, 이중 피동이 되므로 잘못된 표현이 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제시된 지문에서 ‘-시키다’라는 접사를 사용하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축소하다’나 ‘확대하다’는 단어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다’를 중복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축소시키다’와 ‘확대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믿겨지지 않는다.’는 ‘믿다’에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기-’와 ‘-어지다’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사용하여 ‘믿이지 않는다.’ 또는 ‘믿어지지 않는다.’로 써야 한다.

⑤ ‘잊혀지다’는 ‘잊다’에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히-’와 ‘-어지다’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사용하여 ‘잊히다’ 또는 ‘잊어지다’로 써야 한다.

- 11 ㉠과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사용된 단어이고, ㉢과 ㉣은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된 단어이다.



즉집게 예상

181~182쪽

1 ㉠ 2 ㉡ 3 ㉢ 4 잡히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인 ‘도둑’에 초점을 둔 표현에서 잡는 동작을 하는 ‘경찰’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바뀐다. 5 ㉡ 6 ㉣ 7 ㉣ 8 ㉣ 9 ㉠ 10 ‘생각되어진다’를 ‘생각된다’로 고쳐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함께 쓰인 이중 피동이기 때문이다.

- 1 ㉤에서 ‘-아/-어지다’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이다.

- 2 ㉤에서 ‘괴롭히다’는 형용사 ‘괴롭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형태로 사동 표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밀리다’는 동사 ‘밀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대회’가 ‘준호’에 의해 밀는 동작을 당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② ‘닫히다’는 동사 ‘닫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문이 바람에 닫는 동작을 당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③ ‘접히다’는 동사 ‘접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옷들이 누군가에 의해 접는 동작을 당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④ ‘안기다’는 동사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아기가 엄마에 의해 안는 동작을 당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 3 접미사 ‘-히-’는 사동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피동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의 ‘-히-’는 사동의 의미로 쓰인 사동 접미사이다. ㉡, ㉢, ㉣, ㉤의 ‘-히-’는 모두 사동 접미사이나 ㉠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다.

- 4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피동 표현인 ㉡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동작을 당하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피동 표현과 달리 능동 표현은 동작을 하는 주어에 초점을 둔다.

- 5 ㉡에서 ‘녹인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주어인 ‘난롯불’이 ‘얼음’을 녹게 만들고 있음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 6 ㉣에서 ‘철수 때문에 내 옷이 찢어졌다.’의 능동 표현은 ‘철수가 내 옷을 찢었다.’이다. ‘찢겼다’는 동사 ‘찢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능동 표현이 아니라 피동 표현이다.

- 7 제시된 문장은 형용사 ‘났다’의 어간에 접미사 ‘-히-’를 붙여 사동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는 동사 ‘남다’에 접미사 ‘-기-’를 붙여 사동 표현을 나타낸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보이다’는 동사 ‘보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② ‘뿜히다’는 동사 ‘뿜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③ '살게 되다'는 동사 '살다'의 어간에 '-게 되다'를 붙여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⑤ '펼쳐지다'는 동사 '펼치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여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8 ㉔은 동사 '던지다'의 어간에 피동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9 경고문을 읽는 독자에게 초점을 두려면 빈칸에 '부과하다'의 피동 표현인 '부과되다'가 들어가야 한다. ④는 피동 표현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10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법 요소만 넣어도 충분하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할 경우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83쪽

1 ㉓ 2 ㉕ 3 ㉓ 4 ㉕의 주어는 ㉔의 부사어로, ㉕의 주동사는 ㉔의 사동사로 변화한다. ㉕의 목적어는 ㉔에서도 그대로 목적어로 남는다.

1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지 않는다. 피동 표현의 경우 제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동작을 당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둔다.

2 ㉕의 문장은 주어인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어가 객체에게 간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만 해석되는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행위의 주체를 '할머니'로 볼 경우, 할머니가 직접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는 의미가 되고, 행위의 주체를 '아이'로 볼 경우, 주어인 '할머니'께서 '아이'가 스스로 우유를 먹도록 시켰다는 의미가 된다.

② 직접적 의미로 해석하면,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가 객체인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우유를 먹이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③ 간접적 의미로 해석하면,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에 의해 객체인 '아이'가 우유를 먹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④ '-게 하다'를 통해 주어가 객체에게 간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3 ㉔은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㉓은 주어인 '우리'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여 '그'를 반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능동 표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은 '안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②는 '흔들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④는 '잡다'에 접미사 '-히-'가 붙어, ⑤는 '풀다'에 '-게 되다'가 붙어 각각 피동 표현이 되었다.

4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주동 표현에 없던 주어가 새로 생기며, 주동 표현의 주어가 사동 표현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바뀐다. 그리고 주동 표현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남으며, 서술어는 사동사로 바뀐다.

03. 부정 표현

제재 확인 문제

184쪽

1 ㉕ 2 (1) 말다 (2) 안 (3) 못 3 (1)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 (2) 나는 그 영화를 못 보았다. 4 일꾼들이 다 떠나지는 못했다.

1 ㉕의 '안되다'는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의 의미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정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1) 명령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마라'를 활용한 '말다' 부정문이다. (2) 강우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도서관에 가지 않았음을 표현한 '안' 부정문이다. (3) 대회가 능력 밖의 이유로 차를 타지 못했음을 표현한 '못' 부정문이다.

3 긴 부정문은 '-지 않다(아니하다)'나 '-지 못하다'를 이용한 부정문이고,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이나 '못'을 이용한 부정문이다.

4 제시된 문장은 일꾼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못했다는 의미와 일꾼들의 일부가 떠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보조사 '는'을 넣으면 일꾼들의 일부가 떠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의미가 한정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본문 확인 문제



185쪽

1 ㉕ 2 정호야, 여기에서 놀지 마라. 3 ㉕

186쪽

4 ㉕ 5 ㉔ 6 부정문의 중의성 7 ㉔

1 ㉕에서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표현할 때 쓰는 부정 부사는 '안'이다.

2 제시된 문장은 명령문이므로 부정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말다' 부정문을 사용하여 '놀아라'를 '놀지 마라'로 써야 한다.

3 ㉔은 '못' 부정문이 사용된 부분으로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여 퀴즈를 풀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주어가 일부러 퀴즈를 맞히지 않을 것임을 표현하려면 '안' 부정문을 써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㉕은 '못' 부정문이 사용된 것으로, 진교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퀴즈를 잘 풀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② ㉔은 명령문인 '그런 말 하라'를 부정하는 말로, '말다' 부정문을 사용한 것이다.

③ ㉔은 '안' 부정문이 사용된 것으로, 진교가 스스로의 의지로 퀴즈 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가 가정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㉔은 '못' 부정문이 사용된 것이다. '못' 부정문은 부사를 사용하여 짧은 부정문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 4 달려오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능력 밖의 이유로 피하지 못한 것이므로 '못' 부정문으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 부족에 따른 부정 표현이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주체의 의지에 의해 비상금을 쓰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므로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므로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시간에 쫓겨 아침밥을 먹지 못한 상황이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②는 용언 '-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에 해당한다.

- 6 부정문의 중의성이란 하나의 부정문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 7 능력 부정을 표현하는 부사 '못'은 ㉠에 쓰이지 않았다. ㉠은 단순 부정이 쓰인 문장이며, 부사 대신 용언 '-지 않다'가 사용된 긴 부정문이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187~188쪽

1 ⑤ 2 ㉠과 ㉡에는 공통적으로 '말다' 부정문이 사용되었다.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정 표현이다. 3 ④ 4 ① 5 (1) 슬기 (2) 책 (3) 빌리지 6 ③ 7 없다, 모르다 8 ② 9 ⑤ 10 ③ 11 ⑤

- 1 ⑤에서 ㄷ은 '-지 못하다'라는 용언을 이용하여 만든 부정 표현으로, '안', '못'과 같은 부정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2 ㉠의 '하지 마라'와 ㉡의 '먹지 말자'는 둘 다 '말다' 부정문에 속한다.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에서 '마/마라', 청유문에서 '말자'를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3 ④의 '결코'는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이므로, '나는 결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로 써야 한다.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쓰인다.
- 4 ㉠은 '안' 부정문으로 주어가 본인의 의지로 숙제를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의지 부정이고, ㉡은 '못' 부정문으로 주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숙제를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은 용언 '-지 않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이고, ㉡ 역시 용언 '-지 못하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이다.

④ ㉠과 ㉡은 모두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은 주자 스스로의 의지로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은 주자가 자신의 능력 밖의 이유로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보조사 '은/는'은 부정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 요소이다. ㉠과 ㉡ 모두 문장의 중의성이 없으므로 보조사 '은/는'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

- 5 제시된 문장은 부정 부사 '안'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1)은 '안'이 주어 '슬기'를 부정하는 경우, (2)는 '안'이 목적어 '책'을 부정하는 경우, (3)은 '안'이 서술어 '빌렸다'를 부정하는 경우의 해석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각각 '슬기', '책', '빌리지'가 들어가야 한다.

- 6 ③은 주민들이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인지, 일부만 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다.

- 7 '없다'와 '모르다'는 각각 '있다'와 '알다'의 반의어이다. 이 단어의 뜻에는 부정의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문장이 부정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8 ㉠과 ㉡은 '안' 부정문, ㉢은 '못' 부정문, ㉣은 '말다' 부정문이 쓰였다. ㉠은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사용되지 않은 긍정 표현이다.

- 9 ①~④에서는 '못' 부정문이 쓰였지만, ⑤에서는 '안' 부정문이 쓰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④ 부정 부사 '못'을 이용한 '못' 부정문이다. ②, ③ 용언 '-지 못하다'를 이용한 '못' 부정문이다.

- 10 ㉠의 '못살다'는 '못'과 '살다'가 결합하여 '가난하게 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의 '안되다'는 '안'과 '되다'가 결합하여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 ㉡은 모두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부정 표현을 나타내는 부사나 용언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 11 ㉠의 '못살다', ㉡의 '못나다', ㉢의 '못되다', ㉣의 '못쓰다'에 쓰인 '못'은 뒤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형태로 바꾸면 의미가 어색해진다. ⑤의 '못'은 뒤에 오는 '부르다'를 부정하는 문법 요소이므로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으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다.



즉집게 예상

189~190쪽

1 ⑤ 2 '안 맞으면'을 '못 맞으면' 또는 '맞지 못하면'으로 고쳐 써야 한다. 3 ② 4 ③ 5 ⑤ 6 ③ 7 ④ 8 ⑤ 9 ⑤ 10 ㉠은 '-지 않다'를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 부정 표현이고, ㉡은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했지만 부정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에서 부정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부정문의 중의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부정 표현의 종류에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에서 부정문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는 '안', '못'과 같은 부사와 '-지 않다', '-지 못하다'와 같은 용언이 있다고 하였다.

③ ㉠에서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거나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



음' 또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안' 부정문을 사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에서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음'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못' 부정문을 사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④ ㉡에서 부사를 이용한 짧은 부정문과 용언을 이용한 긴 부정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2 문제를 맞히지 못하는 것은 김진교 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능력 부족에 의한 것이므로 '못' 부정문을 써야 한다. 따라서 '안 맞히면'을 '못 맞히면'이나 '맞히지 못하면'으로 고쳐 써야 한다.

3 ①, ③, ④, ⑤는 '-지 않다' 또는 '-지 못하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이지만, ②는 부사 '못'을 활용한 짧은 부정문이다.

4 ㉠과 ㉡은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못' 부정문이고, ㉢은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한 '안' 부정문이다. ㉣은 명령문에 쓰이는 '말다' 부정문이다.

5 밑줄 친 '다 오지 않아'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따라서 '다 오지는 않아'와 같이 보조사 '는'을 사용해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해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6 ㉠은 외부 요인에 의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였으므로 '못' 부정문을, ㉣은 청유문에 쓰이는 부정 표현이므로 '말다' 부정문을, ㉢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가족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안' 부정문을 써야 한다.

7 ④는 능력 부족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해야 한다.

8 ⑤는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부정문의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사과를 먹은 사람은 경미가 아니다.', '경미가 먹은 것은 사과가 아니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② '성호가 잡은 것은 준기가 아니다.', '준기를 잡은 사람은 성호가 아니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③ '철수가 돌아온 날은 어제가 아니다.', '어제 돌아온 사람은 철수가 아니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④ '나에게 꽃을 준 사람은 동생이 아니다.', '동생이 나에게 준 것은 꽃이 아니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9 주어의 의지에 의해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낼 때에는 '안' 부정문을 써야 한다. 또한 '안' 부정문을 긴 부정문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용언 '-지 않다'를 사용해야 한다.

10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 '못'이나 용언 '-지 않다', '-지 못하다'와 같은 문법 요소를 활용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따라서 ㉠은 부정 표현에 속하고, ㉣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없다'를 사용했지만 부정 표현에 속하지 않는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91쪽

1 ④ 2 ⑤ 3 ⑤ 4 ㉠은 부사 '안'을 이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었지만, ㉣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어휘 '모르다'를 통해 의미를 나타내었다.

1 ㉠~㉣에서는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이나,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문장 성분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은 용언 '-지 않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이며, '안' 부정문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 ㉡를 바탕으로 하여 ㉠의 문장이 부사 '못'을 이용한 '못' 부정문이며 짧은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② ㉢, ㉣를 바탕으로 하여 ㉣의 문장이 용언 '-지 못하다'를 이용한 '못' 부정문이며 긴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③ ㉡, ㉣를 바탕으로 하여 ㉢의 문장이 용언 '-지 않다'를 이용한 '안' 부정문이며 긴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를 바탕으로 하여 ㉢의 문장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되는 부정 표현인 '말다'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3 ㉠의 문장은 짧은 부정문으로 표현하여도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4 ㉠은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인 '안'을 이용하여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의 문장은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활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부정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써 '알지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대단원 평가
192~194쪽

1 ⑤ 2 ④ 3 ② 4 ② 5 ② 6 '하겠다'는 '하였다'로, '좋았다'는 '좋겠다'로 고쳐야 한다. 7 ① 8 ⑤ 9 ④ 10 ㉠은 접미사 '-히-'를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은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1 ④ 12 '생각되어진다'와 '판단되어진다'는 '-되다'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사용한 이중 피동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생각된다'와 '판단된다'로 고쳐 써야 한다. 13 ② 14 ④ 15 ① 16 ㉠은 정호가 자신의 의지로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은 정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17 ⑤ 18 ① 19 ⑤

1 ⑤에서 민지의 말은 주체 높임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시니?'로 고쳐야 한다.

2 ④에서 '말씀'은 주어인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대상이므로 간접 높임을 사용하여 '타당하시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감기에 걸린 사람은 '선생님'이므로 '선생님께 서는 감기에 걸리셨다.'라고 해야 한다.



② ‘머리’는 ‘아버지’와 관련 있는 대상이므로 간접 높임을 사용해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세셨다.’라고 해야 한다.

③ 귀가 밝은 사람은 ‘할머니’이므로, 간접 높임을 사용해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시다.’라고 해야 한다.

⑤ ‘계시다’는 주어를 직접 높일 경우에만 쓰이며,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경우에는 ‘있으시다’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 높임의 대상인 ‘훈화’를 높이기 위해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3 ㉠은 청자가 머느리이므로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다. ㉡의 ‘쓰세요’는 ‘해요체’로 상대방을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은 ‘씨어지’와 같은 상대를 낮추는 말로 고쳐야 한다.

4 ㉠은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고, ㉡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비격식체인 ‘해체’가 사용되었다. ㉢는 토론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친구라고 하더라도 ㉠과 같은 격식체를 써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③, ⑤ 친구와 밥을 먹으며 대화하거나, 친구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거나,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은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④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둠원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대화 상황이기는 하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의 대화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5 ㉠과 ㉢은 미래 시제, ㉡과 ㉣은 과거 시제, ㉤은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

6 벡타이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은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 시제로 써야 하고, 아버지께서 벡타이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말하는 시점보다 이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미래 시제로 써야 한다.

7 ㉠에서 ‘먹히다’는 피동사이다. ‘먹다’를 사동사로 바꿀 때에는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 ‘먹이다’로 써야 한다.

8 ㉤에서 ‘만나게 될’은 동사 ‘만나다’에 ‘-게 되다’를 붙인 피동 표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돌리다’는 동사 ‘돌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② ‘화나게 하다’는 동사 ‘화나다’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③ ‘세우다’는 동사 ‘서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④ ‘화해시키다’는 명사 ‘화해’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시키다’를 붙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9 ㉣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둥소리에 놀랐다.’의 사동 표현은 ‘천둥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이다. ‘놀리다’는 ‘놀라다’가 아니라 ‘놀다’의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10 ‘잡혔다’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를 통해 피동의 의미가 나타나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1 ㉣에서 ‘채우고’는 동사 ‘자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를 붙인 것으로, ‘자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사동 표현이다.

12 ‘-되다’와 ‘-어지다’는 모두 피동의 의미를 지닌 문법 요소이다. ‘생각하다’나 ‘판단하다’와 같은 동사는 ‘-하다’를 ‘-되다’로 바꾸면 피동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어지다’와 겹쳐 쓸 필요가 없다.

13 ㉠의 ‘쓰여졌는지’는 동사 ‘쓰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문맥상 피동 표현을 써야 하므로 피동 접미사 ‘-이-’만 붙여 ‘쓰였는지’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문맥상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동사 ‘잡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 ‘잡혔다’로 써야 한다.

③ ‘열려져’는 동사 ‘열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어이므로, ‘-리-’만 사용한 ‘열려’로 써야 한다.

④ ‘육성시키야’는 ‘육성하다’에 대한 사동 표현이지만, ‘육성하다’는 ‘길러 자라게 하다’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시키다’를 쓸 필요가 없이, ‘육성해야’로 써야 한다.

⑤ 문맥상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동사 ‘바꾸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와 연결 어미 ‘-어야’를 사용한 ‘바뀌어야’로 써야 한다.

14 ㉢에서 진교는 능력 부족이나 다른 외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문제를 끝까지 듣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안’ 부정문을 사용해야 한다.

15 ① 주어진 ‘나’의 의지에 의해 ‘너’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제시된 문장은 청유문이므로 ‘말다’ 부정문을 사용해 ‘운동하지 말자.’로 써야 한다.

③, ④ 문맥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정이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해 각각 ‘들지 못했다.’, ‘못 말린다.’로 써야 한다.

⑤ ‘나’가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을 사용해 ‘만나지 않기로’로 고쳐야 한다.

16 ㉠에 쓰인 ‘안’은 단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고, ㉡에 쓰인 ‘못’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17 ㉤은 ‘나’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물건을 구하지 못한 ‘못’ 부정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지 못했다’에서 용언 ‘-지 못하다’를 이용하였으므로 긴 부정문에 해당한다.

18 ㉠의 ‘못’은 뒤에 오는 동사 ‘가다’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 오답 피하기 | ㉡는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는 ‘얼굴이나 몸이 축나다.’, ㉣는 ‘생김새가 보통보다 못하다.’, ㉤는 ‘얼굴이 잘나거나 예쁘지 않다.’의 뜻으로, 뒤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단어들이다.

19 ㉠에는 사동 표현을 써야 하고, ㉡는 명령문이므로 ‘말다’ 부정문을 써야 한다. ㉢은 ‘먹다’의 주체이자 청자인 손님을 높여야 하므로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을 써야 한다.



최종 모의고사

196~198쪽

1 글로 느끼는 사람의 향기

1 ④ 2 ④ 3 ① 4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 ⑤ 6 ⑤ 7 ⑤ 8 상황이나 생각을 간결하고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9 ⑤ 10 ⑤ 11 ③ 12 '나'가 맡은 배역을 정그러울 정도로 잘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 전기문은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생애를 개성적인 문제로 표현하는 문학 갈래이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객관적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석주명의 공로를 뒤늦게 인정하여 1964년에 건국 공로 훈장을 추서했고, 1968년부터 석주명이 남긴 원고를 정리한 책들이 출판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석주명이 가고시마 고등 농림 학교에 다닐 때 곤충학을 배우기는 했지만, 나비 분류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② ㉠에서 석주명은 직접 나비를 채집하여 표본으로 만든 다음, 곤충 도감을 펴 놓고 하나씩 확인하며 나비를 연구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석주명이 단 한 줄의 논문을 쓰기 위해 수만 마리의 나비를 연구했으며, 자료를 정리하느라 날마다 새벽 2시 전에는 잠자리에도 든 적이 없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에서 대부분의 곤충학자들은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과도 친숙한 곤충인 나비를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 『보기』의 글쓴이는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석주명의 모습과 칠전팔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생관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 ㉠에서 석주명은 사람들의 질문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것도 나라를 되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이 글은 연극배우가 되기 전과 후의 '나'의 삶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나'가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나'가 배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역이든 최고의 애정을 바쳐 왔고 또 표현하였으며, 연극배우로서 열정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며 살아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 '나'가 대학 2학년 때 '페드라'라는 연극에서 시녀 파노프 역을 맡아 연기했던 경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나'가 어린 시절 오빠의 도시락을 들고 극단 '신헌'의 무대를 드나들면서 오빠 덕분에 다양한 연극을 보았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나'가 대학 시절 시녀 파노프 역을 완벽히 해내지 못했던 사건을 소개하며, 감히 주인공을 넘보았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 '나'는 연극배우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성실하게 노력하며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에서는 '나'가 나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였다는 점과, '나'의 연기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와 사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격언이나 속담을 사용하여 글을 표현하면 상황이나 생각을 간결하고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쉽다.
- ㉠~㉡는 나비 박사 석주명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문이고, ㉢, ㉣는 연극배우 박정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자서전이다. 독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전기문이나 자서전을 읽음으로써 직접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 일제(日帝)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생물학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석주명의 모습에서 애국심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극배우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히 노력하는 '나'의 모습에서 열정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에서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한 논문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잘못된 학명도 하나씩 고쳐졌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석주명이 바로잡은 학명의 개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를 통해 석주명이 나비를 연구한 이유는 일제(日帝)로부터의 독립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생물학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곤충을 연구하면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를 통해 석주명의 나비 연구로 기존의 잘못된 학명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조선의 나비 분류학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주명의 논문은 조선산 나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보아야 할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를 통해 석주명이 나비 표본을 많이 연구하고, 종류가 다른 나비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 하나씩 깨우쳐 가면서 도감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주명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감의 오류 발생 원인이 도감을 펴낸 학자들이 나비의 변이를 무시하고 분류를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12 **마**에서 ‘무서울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배역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말’은 배우에게 큰 감격을 주는 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199~201쪽

2 네 마음에 감성의 무늬를 새겨 봐

1 ② 2 ④ 3 ④ 4 ⑤ 5 ③ 6 반어법. 이를 사용함으로써 작가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7 ③ 8 ② 9 ⑤ 10 ④ 11 내가 성장해 감에 따라 아버지의 걸모습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끌어 주는 큰 존재라는 의미이다. 12 ③ 13 ④ 14 ⑤

- 1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당신’에 대한 애뜻함과 그리움,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땅을 제 것인 양 사고파는 사람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반어적 기법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2 **가**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시적 상황이지만 ‘당신’을 먼 훗날까지도 잊지 못할 것임을 호소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3 수미 상관은 시의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하여 쓰거나 비슷한 내용이나 구절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구성 방식이다. **가**의 경우 첫 연의 첫 행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고 끝 연의 첫 행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이므로 수미 상관의 방식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피하기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과 같이 세 단위로 끊어 읽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② 매 연마다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먼 훗날 그때까지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먼 훗날 ‘당신’이 찾아오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과, ‘잊었노라.’라는 과거형 대답을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4 **나**의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제시된 인물들 중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돈과 관련지어 평가하는 영민이라고 할 수 있다.
- 5 **나**에서 화자가 사람들이 아직도 순수하다고 표현한 것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 6 ①과 ②는 모두 반어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반어법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여 그 원래의 뜻을 더욱 강조한다.

- 7 **가**와 **나**는 모두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가**의 경우 ‘봄’이 시어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적 속성에서 희망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시어일 뿐이다. **나**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변화 없이 ‘나’가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만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두 시는 모두 운율이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내재운율을 가지고 있다.

② 두 시는 모두 작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서정시이다.

④ **가**에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와 이를 변형한 시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나와 닮은 그는 / 나와 닮지 않았다.’와 이를 변형한 시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두 시 모두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단정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8 **가**에서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시구이다. 따라서 해당 시구에 대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고 한 성준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 9 이 시는 화자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비교하며 떠올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와 닮은 그는 나와 닮지 않았다.’, ‘작지만 큰’ 등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아버지가 화자의 곁을 떠났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반어적 표현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

- 10 ①과 ②는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시구이다. ③~⑤ 중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④와 ⑤이다.

| 오답 피하기 | ③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11 **나**의 화자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을 품어 주고 이끌어 주는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③과 같이 역설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12 개의 주인을 알지 못했던 오추멜로프 경감은 흐류킨의 말을 듣고 개 주인을 찾아 단단히 혼을 내 주겠다고 하였지만, 개 주인이 지갈로프 장군이라는 정보를 얻게 된 후에는 흐류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흐류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달리하였다.

- 13 이 글에서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 즉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기』 역시 제시된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③ 풍자와 해학은 모두 과장이나 왜곡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② 풍자와 해학은 모두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태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⑤ 이 글은 풍자적 표현 방식이, 『보기』는 해학적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 풍자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지만, 해학은 상황은 부정적이라도 인물에 대한 호감과 연민의 시선을 드러낸다.

- 14** 오추멜로프 경감은 개의 주인이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이중적·기회주의적 인물이다.

202~204쪽

3 설득이라는 창과 방패

1 ④ 2 ③ 3 토론의 개최를 알리고,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4 ⑤ 5 ④ 6 ④ 7 ② 8 상업적인 광고는 정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부풀려서 제시하거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광고의 설득 방법을 파악하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9 ④ 10 ① 11 ④ 12 ⑤

- 1** 토론은 상대측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상대측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여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토론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 2** ‘찬성 1’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아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사회자가 토론의 개최를 알리며 동시에 토론의 논제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10시로 정해야 한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찬성 1’은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는 등의 문제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⑤ 라에서 ‘반대 1’은 등교 시간은 학생들의 일과 전체를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은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개인적인 생활 습관 때문이므로 등교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발언 순서를 정하여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이 끝난 후에는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쟁점을 다시 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 4** 토론의 진행 과정 속에서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쟁점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 토론자는 쟁점에 대한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한다.

- 5** 이 글은 광고의 특성과 광고에 나타난 설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수필의 특징에 해당한다.

② 논설문과 같은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역사 비평 또는 역사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⑤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 6** 다에서 광고는 일반적인 설득의 단계를 차례로 거치지 않고도 설득이라는 최종 단계에 이르게 하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 7**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청각만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득 방법이다.

- 8**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광고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과장한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에 설득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9** 이 광고는 저탄소 녹색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 공익 광고이다.

- 10** 이 광고에서는 여성, 남성, 아이들의 음성을 번갈아 가며 제시함으로써 음성의 높낮이와 강약에 변화를 주고, ‘~잡지 말고~잡으세요!’와 같이 같은 말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주고 있다. 또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기억에 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 11** 음성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한 광고를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음성으로만 내용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 광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이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와 다르게 영상과 자막, 그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라디오를 활용한 음성 매체 광고를 텔레비전을 활용한 영상 매체 광고로 제작할 경우, 자막을 통해 중요 내용을 강조하고, 음성 설명 대신 영상을 통해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영상과 함께 자동차나 자전거의 경적 소리 등을 활용하여 광고에 좀 더 생동감을 줄 수 있다.

⑤ 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에서는 『보기』와 같이 화면 분할 효과를 통해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을 한 화면 속에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2** 이 광고는 인터넷 언어 교정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공익 광고이다. 광고의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의 모양을 교정이 필요한 치아에 빚대어 표현하였을 뿐, 치아 교정의 필요성까지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205~207쪽

4 읽기에 접속하시겠습니까?

1 ④ 2 ④ 3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④ 5 ④ 6 ④ 7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발상을 얻을 수 있다. 8 ② 9 ④ 10 ① 11 대뇌 우반구가 활성화되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글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 [가]에서 인간은 글 읽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거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풍부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글 읽기가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 [다]에서 독자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글쓴이가 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생략한 내용들을 전후 문맥을 통해 추론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 읽는 중 단계에서 글의 중심 내용을 밑줄 긋기와 메모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점검한 후, 어떤 낱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사전을 찾아보고, 글의 내용이 어렵다면 참고 서적을 찾아보거나 글의 전후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라]에서 글을 읽다가 어떤 낱말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라]에서 글과 관련된 참고 서적을 찾아 활용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질문을 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글의 일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잠깐 유보하고 읽기를 계속한 후, 글의 전후 맥락을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5 읽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질문을 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의 경우 [마]에서 여행과 독서가 전전두엽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전두엽의 발달에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전전두엽은 13세부터 25세 때까지 급속히 발달한다고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때때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후두엽과 측두엽을 포함한 뒤쪽 대뇌 피질은 주로 감각

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해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지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20%가 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청소년들이 상황을 파악하게 해서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6 [다]에서 도덕적 의사 결정 역시 전전두엽의 역할임을 제시하고 있다. [나]를 통해 전두엽은 고등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뇌는 무게가 약 1.4kg 정도이며, 사람의 사고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후두엽, 측두엽을 포함한 뒤쪽 대뇌 피질이 감각 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해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지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③, ⑤ [나]에서 대뇌 옆 부분인 측두엽은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고, 이마 바로 뒤쪽에 자리한 전전두엽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7 [마]에서 전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전두엽 자체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의 다른 영역들에도 영향을 미쳐 성숙한 사고와 독창적인 발상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8 [라]에서 전전두엽은 다른 사람이 알려 준 해결 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궁리할 때 발달한다고 하였다.

9 [가], [나]와 [다], [라]는 모두 객관적인 정보를 명료한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10 [가]에서 읽는 중의 단계에서는 중심 내용과 함께 구조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가]에서 읽는 중 단계에서는 책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어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글쓴이가 압축하거나 생략한 내용은 전후 문맥을 통해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글을 읽은 후, 읽은 내용에 대해 다른 독자와 토의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내용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보기]에 제시된 자료는 대뇌 우반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다]를 읽으면 대뇌 우반구가 활성화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5 문학으로 만나는 삶과 역사

1 ⑤ 2 ⑤ 3 이 시조는 작가가 백성들로 하여금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도덕을 깨우치게 하고,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삶을 권장하기 위해 창작한 것이다. 4 ④ 5 ⑤ 6 ① 7 ④ 8 대외 무역이 활기를 띠던 당시 상황은, 최척과 옥영이 대외 무역에 참여하면서 안남에서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이 시가 창작될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①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일 뿐이지만,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①은 조국의 광복(해방)을 의미하게 된다. 14 ④ 15 ⑤ 16 ③ 17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삶의 수단인 '노새'와 대조되는 소재들로 도시화·산업화된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이다. 18 ②

- 1 이 시조는 3장 6구의 형식으로 된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 정형시로, 갈래는 평시조이며 연시조이다. 시행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2 이 시조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담고 있다. 가에서는 이른 아침에 함께 농사일을 하러 갈 것을 권하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에 필요한 근면함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노래하고 있고, 나에서는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 주려는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 노인에게 대한 공경을 노래하고 있다.
- 3 이 시조가 창작된 사회적 배경과 작가의 삶 등을 고려할 때, 작품의 창작 의도는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이 시조가 창작된 시대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성실함과 상부상조를 중요하게 여겼고, 노인에게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였다. ④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짐작하기 위한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호미를 메고 논을 매러 가는 모습은 시조가 창작된 시대가 농업 중심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② 이웃의 일을 함께 도와주려는 모습은 당시의 사회가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③ 날이 밝자마자 일터로 나가 일하려는 모습은 근면한 생활과 성실함을 중시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한다.
 ⑤ 젊은이가 노인의 짐을 기꺼이 들어 주려는 모습은 노인에게 대한 공경을 중시하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5 ①은 설의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그러나 ⑤의 경우 매화에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설의법이 사용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6 나에서 최척이 통소를 분 것은 염불 소리를 듣고 가슴에 쌓인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기운을 풀어내기 위해서였다. 또한, 최척이 매일 밤 배 위에서 통소를 붙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7 이 글은 전쟁의 발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최척 일가의 고통과 재회의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 8 왜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가게 된 옥영과 상선을 타고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하던 최척이 안남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대외 무역이 활기를 띠던 당시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9 나에서 옥영이 돈우와 함께 지내는 모습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돈우가 옥영이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 10 가와 나 의 시 모두 화자의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가에서는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에서, 나에서는 '까마귀와 같이 ~ 들이받아 울리오리다.'에서 조국 광복(해방)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 11 가는 친근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 어미 '-런', '-렴' 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12 가는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로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② 미각적, 청각적 심상이 함께 쓰인 공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장이다.
 ③ 미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장이다.
 ④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장이다.
 ⑤ 후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장이다.
- 13 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① 역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조국의 광복(해방)을 의미하는 시어가 된다.
- 14 ④ '하이얀 모시 수건'은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 15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에서 아버지의 행동이나 표정, 말 등을 보고 들은 대로 전달함으로써 아버지의 삶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인물이 직접 자신의 심리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가 아버지의 삶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삶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글은 작품 내의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③, ④ 모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 16 나에서 '나'의 식구들은 아버지가 노새를 찾지 못해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17 '노새'가 구시대적 삶의 수단의 상징이라면 삼륜차,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모두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탄생한 도시적 삶의 수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18 ㉠은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고, ㉡은 '나'의 가족들과 같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12~214쪽

6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1 ④ 2 ① 3 ④ 4 모자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있으십니다'와 같이 높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5 ④ 6 ② 7 ⑤ 8 ③ 9 ㉠은 주동문이고 ㉡은 사동문으로, 두 문장 모두 '학생'이 앉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은 '학생'이 스스로 앉는 행위를 하였고, ㉡은 '선생님'이 '학생'을 앉도록 시켰다는 차이점이 있다.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② 16 ③ 17 ③ 18 ㉠은 부정 표현으로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말이지만, ㉡은 '안'과 '되다'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말이다. 19 ⑤

- 1 주어진 문장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였고,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 2 ㉠은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임 문장이다. 즉, 객체 높임법이 아니라 주체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 3 ㉠은 상대 높임법의 유형 중 하계체가 사용된 문장이고,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된 문장이다. 하계체와 하십시오체는 모두 의례적인 용법으로 쓰여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 4 서술어의 주체인 '모자'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있으십니다'를 '있습니다'로 고쳐 표현해야 한다.
- 5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사어 '내일', '모레' 등을 사용하거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 또는 '-ㄹ 것이-' 등을 사용해야 한다.
- 6 ㉠과 ㉡은 모두 미래 시제가 나타난 문장이다. ㉠에 사용된 '-겠-'은 ㉡에 사용된 '-ㄹ 것이-'보다 내일 운동을 하겠다는 주체의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
- | 오답 피하기 |** ① ㉠과 ㉡은 모두 미래 시제가 나타난 문장이다. ③ ㉠은 '-겠-'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었고, ㉡은 '-ㄹ 것이-'를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었다.

- ④ ㉠과 ㉡에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이 사용되었다. ⑤ ㉠과 ㉡에 관련 없는 설명이다.
- 7 ㉡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되, 청자인 시어머니가 손윗사람인 것을 고려하여 '가겠습니다(갈게요)'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
- 8 ③에서 '옳기다'는 '옳다'의 사동사로 사동 접미사 '-기-'를 사용하여 사동을 나타내고 있다.
- 9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느냐,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학생'이 앉는 행위를 스스로 한 ㉠이 주동문, '선생님'이 '학생'을 앉도록 시킨 ㉡이 사동문에 해당한다.
- 10 이 글에 쓰인 '개선시키다'와 '육성시키다'는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개선하다', '육성하다'에 접미사 '-시키다'를 중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 11 '-게 되다'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게 되다'와 피동 접미사를 함께 사용할 경우 피동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부적절한 피동 표현이 된다.
- 12 ⑤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에게 직접 사탕을 물리거나 사탕을 물도록 시킨 것이다. '물리다'는 '입속에 넣어 두다'의 뜻을 지닌 동사 '물다'에 접미사 '-리-'를 붙인 사동 표현이다.
- 13 ㉠은 능동 표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강조되는 표현이고, ㉡은 피동 표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대상이 강조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은 경고문의 초점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대상에게 두게 되어 경고문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4 '안', '못'과 같은 부사를 이용한 부정문은 짧은 부정문에 해당한다. 긴 부정문은 '-지 않다', '-지 못하다'와 같은 용언을 이용한 부정문에 해당한다.
- 15 ②는 '-지 않다'를 이용한 긴 '안' 부정문에 해당한다. 짧은 '안' 부정문은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와 같이 부사 '안'을 이용해야 한다.
- 16 명령문을 부정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마라'를 사용해야 하므로, '간다'를 '가지 마' 또는 '가지 마라'로 바꾸어 써야 한다.
- 17 ⑥의 '못'은 뒤에 오는 '살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와 결합하여 '가난하게 살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⑥의 '못' 역시 '살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와 결합하여 '성가시고 견디기 어렵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 18 ㉠은 '되다' 앞에 부정 부사 '안'이 붙어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은 '안'과 '되다'가 결합하여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단어이다.
- 19 제시된 문장은 용언 '-지 않다'를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 '안' 부정문으로,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